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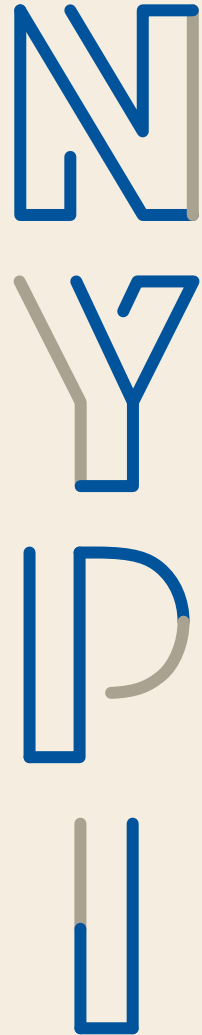
연구보고 20-R14-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오은진 장희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연구보고 20-R14-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_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장희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훈(성균관대학교 교수)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장희영 연구원

국문초록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성별, 학업중단 유형 등에 따른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지원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위기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통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개괄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후 학교 밖으로 나온 위기 여성 청소년들의 생활 경험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더 많이 소외되고 취약한 여성 청소년의 실태를 질적 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위기 여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 중 성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2차 자료 분석으로서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중 성별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재분석하였다. 셋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명 및 이들 중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방식을 통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과 정책 제언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을 분석하였고,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원체계의 강화, 노동 시장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직업·진로 멘토링 사업, 다양한 지역지원체계의 접근성 제고 및 직업탐색 공간의 다양화, 심리 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제공, 여성청소년의 성·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의 여러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 지원 요구, 지역사회 지원 방안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성별, 학업중단 유형 등에 따른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지원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위기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를 통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과 관련한 개괄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후 학교 밖으로 나온 위기 여성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더 많이 소외되고 취약한 여성 청소년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청소년 위기 경험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 학생 미혼모 및 가정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연구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양적 연구에서 분석된 성별 차이 검토
 - 기존 교육통계의 성별 학업중단 현황 분석 및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 성별 분석
- 심층면접조사
 - 선정된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명 및 이들 중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진행

- 전문가 자문

- 결과 분석과 정책제언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3. 주요결과

1)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

-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성별 선호가 크게 작동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고등학교 1·2학년 시점에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50% 이상이 학업중단을 결정함. 학업중단의 사유는 상당히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학교 “부적응”의 사유가 가장 크고 그 외에도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해외출국”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
-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고민 상담은 부모님, 친구 등과 가장 많이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교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여학생은 31.7%로 남성 25.8%보다 월등히 많고 10% 내외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결정할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교사, 학부모, 친구, 상담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민을 의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남학생들에 비해 학교의 의미,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 심리·정신적인 문제, 왕따 등의 교우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결과적으로 공부하기 싫다는 단순한 욕구보다는 그 외의 정신적인 어려움과 학교 이외의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원하는 욕구 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 학업중단숙려제 시 상담을 받았던 기관이용 빈도가 높은 곳은 Wee클래스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꼽드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학교생활에서 교사로부터 받는 도움은 여학생이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우관계의 기회 부족, 교복 착용에 대한 기회 상실,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 소속감의 상실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음. 그러나 후회만큼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학업중단 이후 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는 진로상담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여학생의 경우 50.7%가 진로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이들은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업중단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배달과 서빙으로 나타나며, 특히 상당수가 1일 평균 5~1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비중이 50% 내외이며, 아르바이트 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약 50%만이 부모 동의하에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 밖 청소년의 불완전 노동의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특히 여성의 경우 성희롱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8%에 달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태임을 시사하고 있음.
-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에 비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유의미하게 낮으나 진로준비나 진로독립에 대해서는 그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향후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정규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열망이 남성에 비해 높아서 지속적인 상담 등의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학업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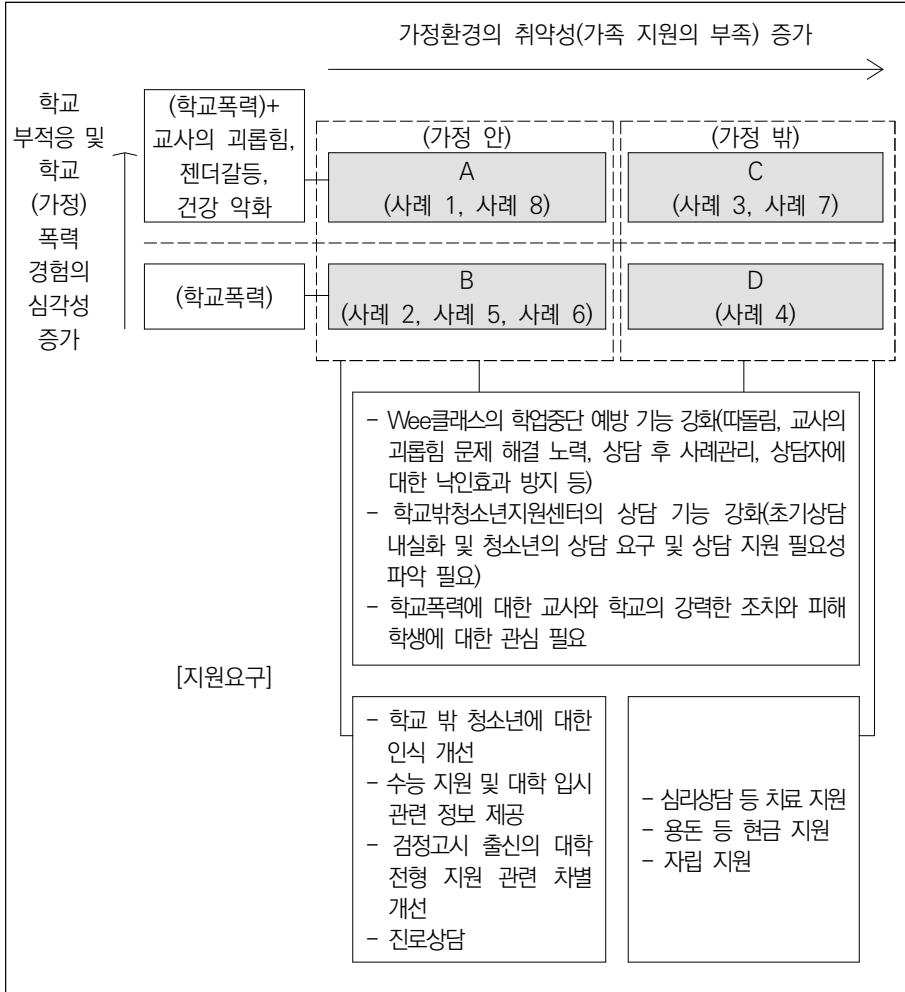
이후 제도권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집단이라 해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에서 유난히 인색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으며 향후 진지한 계획과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일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공공정책서비스의 지역사회 개선을 통해 이러한 여성들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지원 방식으로 학교 밖 여성들의 제도권 진입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공한다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이라 예측할 수 있음.

2)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결과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성과 학업중단 사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밖’과 ‘위기’ 개념을 단순하게 등치시키지 않고자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가정, 경제문제,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이며 본 연구는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음.
- 본 연구는 위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분석 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학교 부적응 경험과 가정환경의 구조적 어려움을 위기 수준을 구분하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음.
- 우선 이들의 가정환경과 위기 경험과의 관계는 가정의 지원이 안정적이어도 학교 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고, 각 사례별로 복합적인 감정과 판단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취약성이 높은 쉼터에

입소해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경우와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을 ‘가정 밖’과 ‘가정 안’의 위치 상황으로만 크게 구분하였음.

-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사례 7을 제외하고, 다른 사례 모두 따돌림,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의 경험은 해당 여성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심각하게는 건강까지도 악화시켰으며, 전공 및 대학, 직업 등 장래계획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교사의 괴롭힘과 젠더갈등(문제), 건강 악화 등의 요인이 더해진 학교폭력 경험을 보다 심각한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경험 역시 그 심각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이상의 분석을 거쳐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음. A와 B유형은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교사와의 갈등 등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이며 A유형의 경우 B유형의 사례들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학교 밖 청소년이자 가정 밖 청소년인 C와 D유형은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 가정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하였고 경제·가정문제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례임. C유형은 D유형에 비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경험의 심각성이 높고, 가정환경의 취약성도 높아 위기의 정도가 가장 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형별 학업중단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을 분석하고 이들의 주요 지원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들의 지원요구는 가정 안과 가정 밖의 경우 전자는 학업 관련 지원요구, 후자는 경제적 지원요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는 한편, Wee클래스 및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기능 강화 요구가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남.
- 집단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 모두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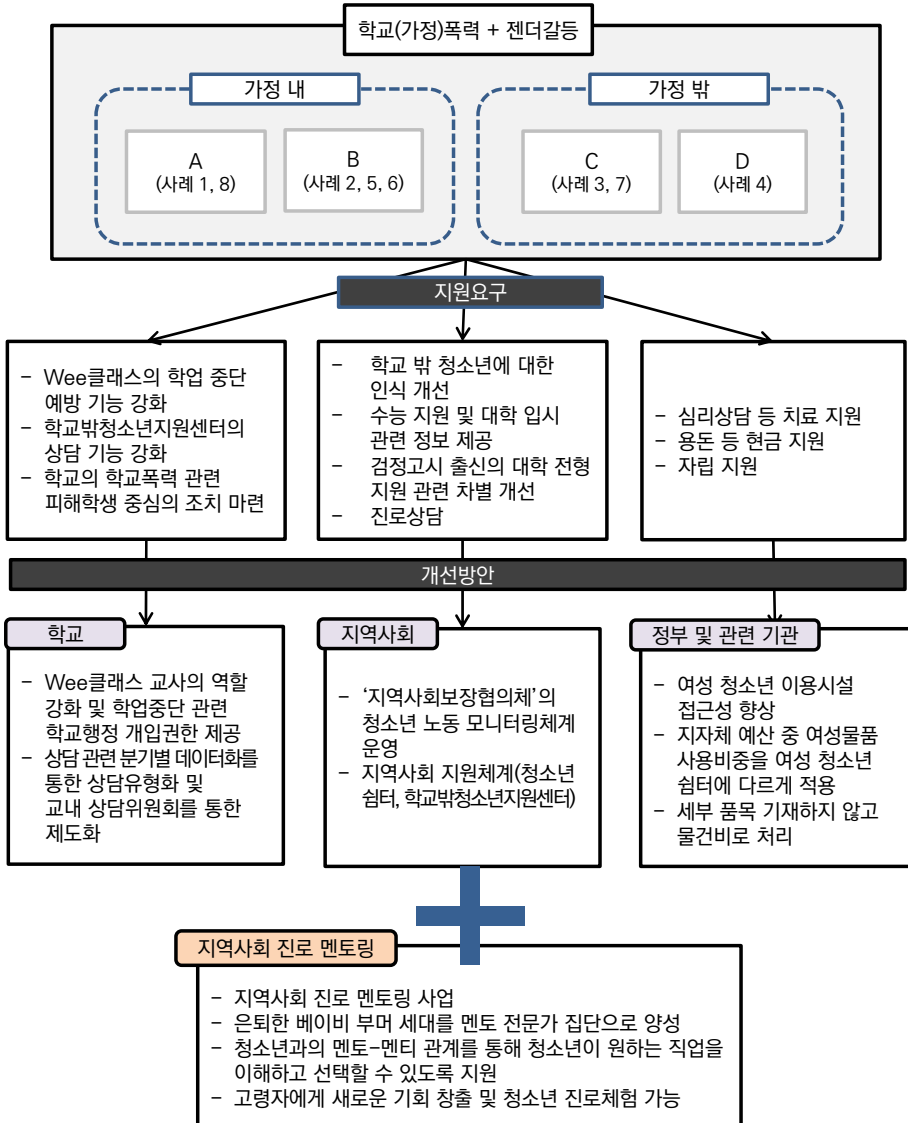
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상담 내용이 전달이 되도 담임교사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등 도움이 되는 조치를 경험하지 못하였음.

- 그럼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예방의 기능으로 Wee클래스에서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업중단 이후의 상담 지원요구도 확인되었음.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만연해진 학생들 간 따돌림과 괴롭힘에 학교 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A와 B유형은 일정 정도 부모의 이해와 지지하에 자격증,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등 수능 지원, 입시 관련 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등 검정고시 지원 이상의 학업 관련 지원요구가 높은 편임. 특히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사례들은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음. 학생부 내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정해준다든가, 대학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경우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개선요구도 제시되었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설계에 제한을 느끼지 않도록, 즉 청소년 시기 위기 경험이 성인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A와 B유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음. 이들 대부분은 자퇴를 하면 인생 망한다거나, 자퇴를 했다고 하면 술이나 담배, 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을 겪었으며, 이를 통해 자퇴의 경험이 이후 자신의 미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음.
-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자 가정 밖 청소년인 C와 D유형은 경제적 지원이나 자립 지원의 요구가 크게 나타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주거 등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C유형의 사례는 각각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또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 일부 쉼터의 여성 청소년은 친구와 만날 때 드는 식비나 교통비, 기타 사고 싶은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여 용돈 등의 현금 지원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에서의 젠더갈등(문제)도 학교 부적응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음. 사례 1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가 너 같은 애들이 림살롱 같은 데를 다니게 된다는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며 초등학교 때 친했던 남학생이 중1 때 자신을 “헤픈 여자”라는 소문을 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져 따돌림을 당했음. 사례 2의 경우 남학생 25명 중 여학생은 4명인 상황에서, 문제 남학생들의 담배 냄새로 천식이 생기고,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듣는 등의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음. 특히 사례 8은 예비소집일에 바지교복 허용 여부를 묻고, 교장 면담을 통해 처음 바지교복을 입은 학생이 되어 오히려 학교 내 교사와 또래들의 편견과 따돌림 등을 경험했음. 사례 6은 괴롭히는 무리 중 남학생들로부터 수업시간에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음. 또래 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젠더갈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관련 연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연구결과 및 정책과제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지원요구와 지원방안

차 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R14-1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 및 실태	9
1.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	11
2. 성별 학업중단 현황	14
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성별 분석 결과	17
4. 소결	57
III.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과 지원요구 ..	61
1.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63
2.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정의와 분석틀	70

3. 유형별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85
4. 유형별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지원요구	95
5. 소결	107
IV. 학교 밖 여성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지원방안	113
1. 요약	115
2. 정책과제	123
참고문헌	133
ABSTRACT	139

표 목차

표 Ⅰ-1.	연도별·학교 단계별 학업중단 청소년 비중 추이	4
표 Ⅰ-2.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6
표 Ⅱ-1.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율(2015~2019년)	14
표 Ⅱ-2.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 수(2015~2019년)	14
표 Ⅱ-3.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의 학년별 분포	15
표 Ⅱ-4.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별 학업중단 사유	16
표 Ⅱ-5.	응답자 특성	18
표 Ⅱ-6.	학교를 그만둔 시기	19
표 Ⅱ-7.	학교를 그만둔 학년	20
표 Ⅱ-8.	학교를 그만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20
표 Ⅱ-9.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고민을 나누고 의논한 상대(복수응답)	21
표 Ⅱ-10.	학교를 그만둔 이유(복수응답)	22
표 Ⅱ-11.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	23
표 Ⅱ-12.	학업중단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종합)	23
표 Ⅱ-13.	학업중단 시 학업속려제 참여 여부	24
표 Ⅱ-14.	학업중단속려제 시 상담을 받았던 기관(복수응답)	24
표 Ⅱ-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25
표 Ⅱ-16.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26
표 Ⅱ-17.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종합)	26
표 Ⅱ-18.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에서의 문제행동 빈도	28
표 Ⅱ-19.	학업중단 시 학교성적	28
표 Ⅱ-20.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 여부	29
표 Ⅱ-21.	학업중단 후 후회했던 이유(복수응답)	30
표 Ⅱ-22.	학업중단 후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복수응답)	31
표 Ⅱ-23.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	32
표 Ⅱ-24.	학업중단 후 주로 어울리는 친구(선후배 포함)	33
표 Ⅱ-25.	학업중단 후 본인의 집 외 거주한 장소(복수응답)	33

표 II-26. 학업중단 후 차별경험(불이익 경험)	34
표 II-27. 최근 한 달간 하루에 많이 했던 일(복수응답)	35
표 II-28.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36
표 II-29.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종류	36
표 II-30. 주당 평균 근로일수	37
표 II-31. 1일 평균 근로시간	37
표 II-32. 시간당 평균 임금	38
표 II-33.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8
표 II-34. 아르바이트 시 부모동의서 제출 여부	39
표 II-35.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	39
표 II-36. 아르바이트 시 경험	40
표 II-37.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복수응답)	41
표 II-38. 진로와 관련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차이	42
표 II-39. 본인 진로에 관한 생각	42
표 II-40.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44
표 II-41.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종합)	44
표 II-42.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45
표 II-43.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심리상태(종합)	46
표 II-44.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심리상태	46
표 II-45. 최근 한 달 동안,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주당평균 일수	47
표 II-46. 학업중단 후 피해 및 비행 경험(복수응답)	47
표 II-47.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	49
표 II-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인지 여부	50
표 II-4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이용 여부	51
표 II-50. 도움을 받은 정도	52
표 II-5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1) 학업/진로/직업	53
표 II-5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2) 건강/상담/복지	55
표 II-53.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3) 활동	56
표 III-1. 심층면접조사 실시 현황	63
표 III-2. 학교 밖 청소년 신규패널 면접조사 주요 내용	65
표 III-3.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67
표 III-4.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가자의 주요 기본정보	68
표 III-5.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68
표 IV-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129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8
그림 III-1. 가정환경에 따른 구분	76
그림 III-2. 학교 부적응 및 학교(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구분	83
그림 III-3.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가자의 위기 경험 유형화	84
그림 III-4. 꿈드림 서비스 흐름도	99
그림 III-5.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가자의 위기 경험 유형화와 지원요구	111
그림 IV-1. 학교 밖 여성 위기 청소년 지원 방안	132

○———— 제1장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된다¹⁾.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의 표 I-1을 살펴보면 연도별·학교 단계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중은 2010년 이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이가 2018년에 미미하게나마 다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8.7.17. 법률 제15354호, 2018.1.16.,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ld=1&subMenuld=15&tabMenuld=81&eventGubun=060101&query=%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표 1-1. 연도별·학교 단계별 학업중단 청소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6	2017	2018
초등학교	0.4	0.5	0.6 (0.3)	0.6 (0.2)	0.6 (0.3)	0.7 (0.3)
중학교	1.0	0.8	1.0 (0.8)	0.6 (0.5)	0.7 (0.5)	0.7 (0.6)
고등학교	2.5	1.3	2.0 (1.7)	1.4 (1.1)	1.5 (1.3)	0.6 (1.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 간추린 교육통계. p.14에서 재구성.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3차 연구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성별, 학업중단 유형 등에 따른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다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지원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통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과 관련한 개괄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후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위기상황에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에서도 더 많이 소외되고 취약한 여성 청소년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 및 실태
-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관련 위기 경험과 지원요구
- 지역사회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
-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2) 연구방법

(1) 선행연구 분석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를 떠난 여성 청소년들의 남성 청소년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경험과 지원요구를 분석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위기 경험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 학생 미혼모 및 가정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여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위기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양적 연구에서 분석된 성별 차이도 검토하였다.

(2) 통계자료 분석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 및 실태를 이해하고자 학업중단과 관련한 기존 교육통계 및 실태 관련 2차 자료로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였다²⁾.

2)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 실태조사로 당초 raw data 분석을 계획하였으나 데이터 수령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개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재분석하였다.

기존 교육통계를 통해 성별 학업중단 현황을 분석하고,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성별 분석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재분석하였다.

(3) 심층면접조사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관련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경험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쉼터 입소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적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지원방안을 청취하고자 쉼터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신규패널 면접조사의 내용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기본정보로 활용하고, 최대한 중복적인 질문을 제외하여 여성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파악하고자 2차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구체적인 위기 경험과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 앞으로의 계획과 지원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심층면접조사에서는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학업중단 관련 인식, 학업중단과 관련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지원요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시간적 제한 등에 따라 1차 조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학업중단 사유 및 결정과정’을 회고하면서 위기 경험이나 젠더이슈와 관련된 경험이 드러나면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표 | -2.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참여자 섭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신규패널 중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조사 섭외 - 8~9월에 걸친 1차 학교 밖 청소년 신규패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9~10월 2차 심층면접조사 실시 - 심층면접 실시 전 면담, 녹음, 전사에 관한 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총 8명(쉼터 입소 여성 청소년 2명 포함) - 쉼터 관계자 2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조화된 질문지 이용 개별 면접 - 온라인 대면 면접조사 - 소요시간 및 실시횟수: 1회 1시간~1시간 30분
조사 자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취 및 전사
면담 및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주요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학업중단 관련 인식, 지원요구

(4) 전문가 자문

연구 결과 분석과 지역사회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여성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관계자와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다음의 그림 I-1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제2장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 및 실태

- 1.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
- 2. 성별 학업중단 현황
- 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성별 분석 결과
- 4. 소결

1.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

본 절에서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를 떠난 여성 청소년들의 남성 청소년들과는 다른 경험과 지원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91~2011년의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논문 총 62편을 분석한 김영희와 허철수(2012: 1025)는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는 학교급별이나 성별 등의 하위집단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으며, 조윤정, 황소리와 오민아(2018: 376) 역시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이 성별에 따라 다른 위기와 적응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2012~2018년의 학업중단 관련 논문 총 135편을 분석한 조혜영(2019: 496)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나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등의 하위유형이었으며, 분석 결과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에서도 성인지적 연구는 제시되고 있지 않은 바, 결과적으로 관련 연구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 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 정책을 강하게 제기한 연구는 정해숙 외(2010, 2011)의 연구이다. 우선 정해숙 외(2010: 47)는 여성 청소년의 가부장적 폭력, 성적 학대, 성 역할의 일방적 강제 등으로부터의 가출은 그 자체로 위기 경험이자, 동시에 가출로 인해 다시 남성중심적인 성경험, 성폭력, 성매매,

원치 않은 임신, 낙태 등의 위기 경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성별화된 사회에서 특정한 성별을 전제하지 않는 성중립적인 청소년 정책은 여성 청소년의 경험이 남성 청소년과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0: 56). 정해숙, 오은진과 최자은(2011: 271-272)의 연구는 총 41명의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이들이 가족,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었으며, 학업중단 이후에도 여성 청소년에게 폐쇄적인 노동시장으로 조건만남 등 성산업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소년지원기관으로부터도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냈다.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학업중단을 겪은 학생 미혼모는 주요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주, 송진아, 2011; 정해숙, 최윤정, 최자은, 2014). 이현주와 송진아(2011)의 연구는 10대 미혼모는 부모 등 가족과 또래집단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과 대처방법을 공유할 수 없었으며,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신 사실로 인해 퇴학, 권고자퇴 등 “강제된 선택”으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10대 미혼모의 학업중단은 현재의 청소년, 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보호의 박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들 삶의 경로에 있어 주변인으로 머물게 할 수 있음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정해숙 외(2014)의 연구는 임신, 출산을 둘러싼 학교의 태도와 학업중단의 과정,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서의 교육경험, 원적교 복교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과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요구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사회 거주 학생 미혼모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여성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양적 연구에서도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김지경과 이상준(2014: 100-101)의 조사에서 성별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 ‘학업에 흥미와 동기나 의욕이 없어서’(30.6%) 학업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이 사유는 여성 청소년(16.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폭력,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의 사유가 가장 많고, 이는 남성 청소년보다 10%p가량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현행 공공지원서비스가 학교 밖 취약계층 청소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일부 연령대 남성 청소년 중심이며, 여성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기관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다(김지경, 이상준, 2014: 140).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생활세계 경험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여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초과근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성폭력 등) 경험률이 더 높았으며, 이에 대해 남성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 청소년은 대체로 참고 계속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윤철경 외, 2018: 121-127).

가정 밖 여성 청소년 관련 연구 역시 위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김희진, 백혜정과 김은정(2018)의 연구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보다 가정 내에서 경험한 학대 정도가 심하고, 불법·탈법 일자리 경험, 자살 생각이나 계획을 세웠던 경험도 더 많았다. 이에 따라 김희진 외(2018: 184)의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 진로·진학 문제, 향후 거취 문제 등에서 여성 청소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더욱 시급함을 제기하였다.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서도 자살 문제를 가진 청소년은 여성(2.1%)이 남성(1.3%)보다 높게 나타나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영역과 위기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여성 청소년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바 성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황순길 외, 2016: 159).

2. 성별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과 관련한 지난 5년간의 성별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성의 학업중단 경향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율(2015~2019년)

(단위: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5	0.78	0.87	0.54	0.55	0.67	0.69	1.25	1.49
2016	0.74	0.80	0.53	0.54	0.64	0.62	1.16	1.35
2017	0.79	0.83	0.55	0.57	0.62	0.61	1.31	1.39
2018	0.87	0.87	0.61	0.62	0.68	0.64	1.46	1.47
2019	0.97	0.92	0.65	0.66	0.77	0.70	1.70	1.5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각 연도별 유초중등통계, 학업중단학생 현황(<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6월 29일 인출).

* 주 1)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재적학생수×100.

주 2) 각 해당 연도의 조사기준일은 전년도 3월 1일~해당 연도 2월 말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의 수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학업중단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표 II-2.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 수(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5	51,906	23,569 (45.4)	28,337 (54.6)	14,886	7,058 (47.4)	7,828 (52.6)	11,702	5,513 (47.1)	6,189 (52.9)	25,318	10,998 (43.4)	14,320 (56.6)
2016	47,070	21,728 (46.2)	25,342 (53.8)	14,555	6,968 (47.9)	7,587 (52.1)	9,961	4,810 (48.3)	5,151 (51.7)	22,554	9,950 (44.1)	12,604 (55.9)
2017	47,663	22,386 (47.0)	25,277 (53.0)	14,998	7,107 (47.4)	7,891 (52.6)	8,924	4,302 (48.2)	4,622 (51.8)	23,741	10,977 (46.2)	12,764 (53.8)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8	50,057	24,078	25,979	16,422	7,902	8,520	9,129	4,516	4,613	24,506	11,660	12,846
		(48.1)	(51.9)		(48.1)	(51.9)		(49.5)	(50.5)		(47.6)	(52.4)
2019	52,539	25,957	26,582	17,797	8,582	9,215	9,764	4,910	4,854	24,978	12,465	12,513
		(49.4)	(50.6)		(48.2)	(51.8)		(50.3)	(49.7)		(49.9)	(50.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각 연도별 유초중등통계, 학업중단학생 현황(<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6월 29일 인출).

* 주) 각 해당 연도의 조사기준일은 전년도 3월 1일~해당 연도 2월 말임.

중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각 학년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학업중단자가 발생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세가 비교적 유사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녀 모두 1학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지난 5년간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표 II-3.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의 학년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학년	2015	2016	2017	2018	2019	
중학교	여성	계	5,513	4,810	4,302	4,516	4,910
		1	33.0	34.6	37.3	36.6	33.8
		2	36.1	33.9	32.6	37.0	36.2
	남성	계	6,189	5,151	4,622	4,613	4,854
		1	34.9	33.9	37.9	39.6	37.9
		2	34.0	32.8	31.3	33.9	33.9
고등학교	여성	계	10,998	9,950	10,977	11,660	12,465
		1	58.7	55.7	58.8	54.4	53.7
		2	34.0	36.3	34.2	38.6	37.8
	남성	계	14,320	12,604	12,764	12,846	12,513
		1	59.6	56.6	57.1	52.6	50.9
		2	32.0	34.6	34.2	37.8	37.6
		3	8.4	8.8	8.7	9.6	11.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각 연도별 유초중등통계, 학업중단학생 현황(<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6월 29일 인출).

* 주) 각 해당 연도의 조사기준일은 전년도 3월 1일~해당 연도 2월 말임.

우리는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사유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교 부적응의 사유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 외는 기타를 제외하면 해외출국의 사유가 두 번째에 이른다. 최근 학교 부적응과 해외출국의 사유는 감소하는 한편 기타의 사유가 48.6%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최근에 오면서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입시제도와의 상당한 상관성이 있다고 유추된다.

표 II-4.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별 학업중단 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퇴					퇴학 품행		제적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학교 폭력 대책 지치 위원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2015	전체	25,318	4.0	2.5	38.6	15.6	34.5	0.4	3.0	1.0	0.5	0.0
	여성	10,998	4.9	2.7	34.5	17.4	36.9	0.1	2.1	1.0	0.4	0.0
	남성	14,320	3.2	2.3	41.8	14.1	32.7	0.6	3.7	1.0	0.6	0.0
2016	전체	22,554	3.9	2.2	35.3	16.4	37.2	0.4	3.1	0.9	0.5	0.0
	여성	9,950	5.1	2.1	31.7	18.3	38.9	0.2	2.2	0.9	0.4	0.1
	남성	12,604	3.0	2.3	38.1	14.8	35.8	0.6	3.7	0.9	0.6	0.0
2017	전체	23,741	4.2	1.5	30.4	16.6	43.1	0.6	2.7	0.6	0.4	0.1
	여성	10,977	5.1	1.4	27.0	17.5	46.0	0.2	1.9	0.5	0.4	0.1
	남성	12,764	3.4	1.5	33.3	15.8	40.6	1.0	3.3	0.7	0.4	0.1
2018	전체	24,506	4.1	1.1	28.7	14.8	47.2	0.6	2.6	0.5	0.4	0.0
	여성	11,660	5.2	1.0	25.4	15.9	49.9	0.2	1.6	0.4	0.3	0.1
	남성	12,846	3.0	1.3	31.8	13.8	44.6	0.9	3.5	0.5	0.5	0.0
2019	전체	24,978	4.7	1.0	27.9	14.3	48.6	0.6	2.3	0.3	0.3	0.0
	여성	12,465	5.9	0.9	25.3	15.2	50.7	0.3	1.3	0.2	0.2	0.0
	남성	12,513	3.5	1.2	30.5	13.3	46.4	0.9	3.2	0.4	0.4	0.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각 연도별 유초중등통계, 학업중단학생 현황(<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6월 29일 인출).

* 주) 각 해당 연도의 조사기준일은 전년도 3월 1일~해당 연도 2월 말임.

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성별 분석 결과³⁾

2018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성별 분석을 하기에 앞서 본 조사의 청소년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II-5>에 따르면 여성은 49.3%, 남성은 50.7%가 조사되었으며 총 사례 수는 2,522명이다⁴⁾. 연령대는 전체적으로 16~18세 구간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71.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조사된 연령구간이며 남녀의 비중은 대동소이하다. 학업중단 시 성적은 하위가 53.0%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하위권 성적이 더 많이 조사되어 남성은 58.7%, 여성은 47.2%로 나타났다. 여성은 상위권 학생들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여성 25.7%, 남성 19.0%). 학업중단기간과 관련해서도 여성은 2년 이상이 남성에 비해 다소 적게 표집 된 반면 6개월 미만은 다소 많이 표집 되었다. 비행청소년과 관련해서도 남성은 비행이 29.2%로 표집 된 반면 여성은 10.1%로 표집 되었다. 경제수준은 남녀가 대동소이하게 표집 되었으며, 기관유형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전체 59.5%가 표집 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69.1%로 남성에 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표집 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표집된 인원은 남성 25.0%에 비해 여성은 8.4%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아래와 같이 표집 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3) 당초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15~19세 여성 청소년의 사례수가 마지막 조사시점인 2017년 기준으로 약 30명에 불과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에 표본이 너무 적음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통계결과 중 성별 분석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재분석하였음.

4) 본 조사에 참여한 사례 수는 2,522명이나 제시된 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산출된 값임(윤철경 외, 2018: 17).

표 II-5.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 체		100.0	50.7	49.3
연령대	만 9~12세	2.1	2.1	2.1
	만 13~15세	17.3	15.6	19.1
	만 16~18세	71.1	71.4	70.7
	만 19세 이상	9.5	10.9	8.1
학교중단 시 성적	상	22.3	19.0	25.7
	중	24.7	22.3	27.1
	하	53.0	58.7	47.2
학교 중단 기간	0~6개월 미만	18.5	16.4	20.6
	6개월 이상~1년 미만	18.5	18.2	18.8
	1년 이상~2년 미만	26.8	26.2	27.4
	2년 이상	36.2	39.1	33.3
응답자 유형	일반	80.2	70.8	89.9
	비행	19.8	29.2	10.1
가정의 경제수준	상	8.3	9.5	7.2
	중	77.2	75.6	78.8
	하	14.5	14.9	14.0
기관 유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9.5	50.2	69.1
	내일이룸학교	0.8	0.5	1.0
	단기쉼터	1.5	1.9	1.2
	이동쉼터	2.7	2.7	2.7
	미인가대안학교	15.7	15.4	16.0
	보호관찰소	16.8	25.0	8.4
	소년원	3.0	4.2	1.7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7, p.19 재구성.

학업중단청소년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 분석에 해당하는 표본은 총 2,522명이며 이들 중 남성은 1,278명이고 여성은 1,244명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63.4%)가 절반 이상이었고, 고등학교 이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여성(37.5%)이 남성(35.4%)보다 조금 많았다. 교육통계연보의 자료와 다소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고등학교 시기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6. 학교를 그만둔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응답
전체	2,522	12.4	24.0	63.4	0.2
남성	1,278	12.6	22.8	64.3	0.3
여성	1,244	12.1	25.4	62.4	0.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288 재구성.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학교를 중단한 비중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고등학교 1학년에 전체의 30%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2학년에 20% 정도가 추가로 학교를 중단하는 것으로 봐서 고등학교에 학교를 중단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비중의 성별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중단 학생들의 50% 이상이 발생한다는 점은 자아발달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성장과 발달 이행단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관련한 고등학교 과정의 파행적 운영과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7. 학교를 그만둔 학년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저학년	고학년	상급학교 진학 안함	1학년	2학년	3학년	상급학교 진학안함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2.2	3.4	6.8	6.6	6.7	4.3	9.2	36.5	20.6	3.3	100.0
남성	2.6	3.3	6.8	6.5	6.3	3.1	9.5	37.3	20.4	3.9	100.0
여성	1.8	3.5	6.7	6.8	7.2	5.6	8.8	35.6	20.8	2.7	100.0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23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시점부터 현재까지 1~2년 미만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 이상 재복귀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중이 남성은 20.5%, 여성은 18.7%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교육제도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8. 학교를 그만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단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합계
전체	18.5	18.5	26.8	16.5	19.6	100.0
남성	16.5	18.3	26.2	18.5	20.5	100.0
여성	20.5	18.8	27.4	14.5	18.7	100.0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26 재구성.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77.4%)과 가장 많이 고민을 나누고 의논하였으며, 다음으로 친구(39.1%), 학교 선생님(28.7%) 순이었다. 의논할 상대가 없었다는 비율은 남성(14.3%)이 여성(8.8%)에 비해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을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특히 상담기관의 이용빈도

도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담기관이 체계화되어 있다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9.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고민을 나누고 의논한 상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선후배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전체	2,522	77.4	13.6	39.1	9.5	28.7	3.5
남성	1,278	76.7	10.3	33.1	9.2	25.8	2.2
여성	1,244	78.1	17.0	45.3	9.8	31.7	4.9
구분	사례수	학교	성직자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상담기관 (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친척	기타	아무도 없었다
전체	2,522	18.1	3.6	10.5	4.3	1.1	11.6
남성	1,278	15.4	3.0	7.6	3.8	0.7	14.3
여성	1,244	21.0	4.1	13.5	4.8	1.4	8.8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292~293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9.4%), 공부하기 싫어서(23.8%),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3.4%)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8.7%), 공부하기 싫어서(27.8%),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19.5%)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많은 것에 비해, 여성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40.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7.5%),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22.9%)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교를 그만둘 때 공부 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받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단순히 학업을 포기했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학교를 그만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공부 하기 싫어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 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심리, 정신적인 문제로	검정 고시를 준비 하려고	내 특기를 살리 려고	학교 친구 들과의 문제 (폭력, 왕따 등)로 인해
전체	2,522	39.4	23.8	23.4	19.3	17.8	15.5	15.3	13.5
남성	1,278	38.7	27.8	19.5	15.9	13.4	15.7	14.1	8.4
여성	1,244	40.2	19.6	27.5	22.9	22.3	15.4	16.6	18.8

구분	사례수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업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의 규칙이 엄격 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2,522	10.4	9.8	8.7	7.8	7.2	6.6	38.3	0.2
남성	1,278	12.5	11.0	9.6	9.9	6.2	7.2	42.6	0.2
여성	1,244	8.2	8.6	7.7	5.6	8.3	6.1	33.1	0.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294~296 재구성.

* 주) '기타' 응답으로는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6.3%),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4.8%), '(학교를 그만둔) 친구의 영향으로'(4.8%),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4.4%),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3.9%),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3.1%), '전학이 잘 안 되어서'(3.1%), '부모님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2.6%), '밤늦게까지 게임, 인터넷, 휴대폰을 하느라'(2.5%), '아르바이트 하느라 피곤해서'(2.2%), '이성 문제로 인해'(1.4%), '그 외'(5.5%)가 있음.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42.1%),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40.4%),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37.7%),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33.0%)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은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과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받은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높았다.

표 II-11.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 기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청소년상담 복지(지원) 센터 등 청소년 시설	진로나 직업 교육·훈련 관련시설 (예: 고용센터)	꿈드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전체	2,522	33.0	28.1	42.1	40.4	21.0	37.7
남성	1,278	34.4	29.2	45.7	38.9	24.9	36.3
여성	1,244	31.6	26.9	38.5	42.0	17.1	39.1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297~302 재구성.

* 주)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학교를 그만둘 당시 청소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은 2.92점, 경제적 지원은 2.82점, 부모의 전반적인 지원은 2.87점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받는 전반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의 방임(1.90점)이나 학대(1.58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모님의 방임은 0.04점 낮은 반면, 학대는 0.04점 높게 나타났다.

표 II-12. 학업중단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방임	학대	전체
전체	2,522	2.92	2.82	1.90	1.58	2.87
남성	1,278	3.00	2.87	1.92	1.56	2.94
여성	1,244	2.84	2.77	1.88	1.60	2.81
t	-	4.82***	3.06***	1.00	-1.49	-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40, p.43, p.303 재구성.

* 주 1) 4점 척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학업을 중단할 때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0%에 불과하며,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비율은 남성 26.5%, 여성 33.6%로 여성 청소년의 참여율이 다소 높았다.

표 II-13. 학업중단 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였다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	2,522	30.0	70.0
남성	1,278	26.5	73.5
여성	1,244	33.6	66.4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16 재구성.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청소년은 Wee클래스(51.1%)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받았고, 그다음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28.9%), 청소년상담복지센터(16.3%) 등의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Wee클래스(남성 50.3%, 여성 51.7%)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남성 24.4%, 여성 32.6%)의 이용 비율이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남성 19.0%, 여성 14.1%)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II-14. 학업중단숙려제 시 상담을 받았던 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Wee 클래스	Wee 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757	51.1	9.2	16.3	28.9	5.2	0.0
남성	339	50.3	9.9	19.0	24.4	4.5	0.0
여성	419	51.7	8.6	14.1	32.6	5.8	0.1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17 재구성.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의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는 50.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3%였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남성(46.4%)에 비해 여성(53.3%)의 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II-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였다	동의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전체	757	50.2	8.2	41.3	0.3
남성	339	46.4	11.8	41.9	0.0
여성	419	53.3	5.3	40.8	0.6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18 재구성.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27.2%)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도움이 필요 없어서(25.0%), 그 기관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몰라서(22.7%),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18.7%) 순으로 응답이 많은 반면, 여성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42.5%)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5.6%), 귀찮을 것 같아서(14.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에 대한 인식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정부의 도움이 필요없거나, 귀찮아하는 비중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16.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 없어서	그 기관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몰라서	귀찮을 것 같아서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62	27.2	20.2	19.6	12.0	1.7	15.2	5.3	2.0
남성	40	18.7	25.0	22.7	10.4	0.0	15.0	8.2	2.6
여성	22	42.5	11.4	14.0	14.7	4.7	15.6	0.0	1.0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19 재구성.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 관계와 관련하여 인식의 성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친구관계(남성 2.95점, 여성 2.80점)와 교사관계(남성 2.65점, 여성 2.49점)에서는 남학생이 다소 긍정적이고, 학교생활(남성 2.35점, 여성 2.57점)에서는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여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업보다는 교사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남학생들에 비해 다소간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업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서는 여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서 학업중단 이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이 여성들에게 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한다.

표 II-17.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전체
전체	2,522	2.57	2.87	2.46	2.63
남성	1,278	2.65	2.95	2.35	2.65
여성	1,244	2.49	2.80	2.57	2.6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20 재구성.

* 주) 4점 척도.

학업중단 전 지각 경험이 전혀 없었던 비율이 29.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거의 매일(26.6%)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지각을 한 경험이 전혀 없다(34.0%)가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남성은 거의 매일 지각한 경험이 있다(29.1%)가 가장 많았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무단결석을 한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다(45.9%)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거의 매일(18.9%), 주 1~2회(14.9%) 순이었다. 여성은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남성도 무단결석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0.9%로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월 1~2회 이상 무단결석한 경험은 여성에 비해 많고(남성 11.3%, 여성 8.3%) 거의 매일 무단결석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여성에 비해 높았다(남성 22.3%, 여성 15.4%).

학교를 그만두기 전 수업을 몰래 빼먹는 무단조퇴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거의 매일(13.7%), 주1~2회(12.1%) 순이었다. 무단조퇴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49.9%)에 비해 여성(66.9%)이 높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무단조퇴를 경험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선생님에게 대든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7.4%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연 1~2회(10.3%), 거의 매일(7.7%) 순이었다. 선생님에게 대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73.6%)이 남성(61.3%)에 비해 높았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러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71.6%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연 1회(14.4%), 월 1~2회(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학교에 불러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81.3%)이 남성(6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18.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에서의 문제행동 빈도

(단위: 명, %)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무응답
자각	전체	2,522	29.3	15.1	12.1	16.8	26.6	0.1
	남성	1,278	24.6	14.3	12.9	18.9	29.1	0.1
	여성	1,244	34.0	16.0	11.2	14.7	24.0	0.1
무단결석	전체	2,522	45.9	10.3	9.8	14.9	18.9	0.1
	남성	1,278	40.9	9.4	11.3	16.1	22.3	0.1
	여성	1,244	51.2	11.3	8.3	13.8	15.4	0.1
수업을 몰래 빼먹음 (무단조퇴)	전체	2,522	58.3	7.9	7.8	12.1	13.7	0.2
	남성	1,278	49.9	8.0	9.7	14.5	17.6	0.2
	여성	1,244	66.9	7.8	5.7	9.7	9.7	0.2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전체	2,522	67.4	10.3	6.8	7.6	7.7	0.1
	남성	1,278	61.3	11.7	8.5	8.8	9.6	0.1
	여성	1,244	73.6	9.0	5.1	6.4	5.8	0.1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전체	2,522	71.6	14.4	7.1	3.2	3.6	0.1
	남성	1,278	62.2	17.7	10.4	4.2	5.5	0.1
	여성	1,244	81.3	11.0	3.8	2.2	1.6	0.1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30~334 재구성.

학교를 그만둘 당시 성적은 하위권이 29.3%로 가장 많고, 중위권(24.7%), 중하위권 (23.7%) 순이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이 하위권이었던 비율이 높았고 (남성 35.0%, 여성 23.5%), 중위권 이상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성 41.3%, 여성 52.7%).

표 II-19. 학업중단 시 학교성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평균
전체	2,522	29.3	23.7	24.7	15.7	6.6	2.46
남성	1,278	35.0	23.7	22.3	12.9	6.1	2.31
여성	1,244	23.5	23.7	27.1	18.6	7.0	2.6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35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4%로,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경우(54.6%)보다 적었다. 여성(46.6%)은 남성(44.2%)에 비해 후회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II-20.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522	45.4	54.6
남성	1,278	44.2	55.8
여성	1,244	46.6	53.4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36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친구를 사귄 기회가 줄어드는 것(50.1%),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47.9%)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53.9%)과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하는 것(47.4%),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46.8%) 등의 이유가 가장 큰 반면, 여성은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하는 것(52.8%),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52.0%),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51.8%) 순이었다.

표 II-21. 학업중단 후 후회했던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친구 사귀 기회가 줄어든 것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다양한 경험(수학 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졸업장을 받지 못하 는 것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전체	1,144	50.1	24.0	52.8	44.0	26.9
남성	564	47.4	24.4	53.9	46.8	26.1
여성	580	52.8	23.5	51.8	41.4	27.7
구분	사례수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못 누리는 것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기타	없음	
전체	1,144	24.5	47.9	6.9	0.8	
남성	564	25.5	43.7	6.0	1.2	
여성	580	23.5	52.0	7.8	0.4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37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72.8%)과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69.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남성 75.2%, 여성 70.3%),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남성 69.6%, 여성 69.2%), 학교 교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남성 33.5%, 여성 36.9%) 순으로 학업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II-22. 학업중단 후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취업(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학교폭력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학교 교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전체	1,377	72.8	69.4	20.3	31.2	7.5	35.1
남성	713	75.2	69.6	23.2	30.9	5.7	33.5
여성	664	70.3	69.2	17.2	31.5	9.5	36.9
구분	사례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것	선생님의 체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기타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1,377	9.0	7.8	6.5	3.9	1.5	
남성	713	6.9	8.7	5.0	4.1	1.3	
여성	664	11.2	6.9	8.2	3.7	1.7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38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5.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진로상담을 받음(47.9%), 대안학교에 다님(27.8%)과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27.8%)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남성 71.5%, 여성 79.6%)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학업 지속 욕구가 조금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진로상담을 받음(남성 45.2%, 여성 50.7%)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담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 욕구가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남성은 대안학교에 다님(28.5%),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24.8%)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그다음으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33.6%),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27.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II-23.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

(단위: 명, %)

항목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대안학교에 다님	전체	2,522	27.8	72.1	0.1
	남성	1,278	28.5	71.3	0.2
	여성	1,244	27.1	72.9	0.0
검정고시 공부를 함 (검정고시 학원 등)	전체	2,522	75.5	24.4	0.1
	남성	1,278	71.5	28.4	0.2
	여성	1,244	79.6	20.4	0.0
정규학교 복교	전체	2,522	4.1	95.9	0.0
	남성	1,278	4.5	95.4	0.1
	여성	1,244	3.7	96.3	0.0
진로상담을 받음	전체	2,522	47.9	52.0	0.0
	남성	1,278	45.2	54.7	0.1
	여성	1,244	50.7	49.3	0.0
직업기술을 배움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전체	2,522	26.3	73.6	0.1
	남성	1,278	24.8	75.1	0.1
	여성	1,244	27.9	72.0	0.1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전체	2,522	27.8	72.1	0.1
	남성	1,278	22.2	77.6	0.2
	여성	1,244	33.6	66.4	0.0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전체	2,522	17.8	82.1	0.0
	남성	1,278	17.4	82.5	0.1
	여성	1,244	18.3	81.7	0.0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39-345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지금까지 어울리는 친구로는 학교 친구 외 기존 친구(33.9%)가 가장 많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29.9%), 기존의 학교 친구(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혼자 지낸다는 응답도 11.9%나 있었다. 남성은 학교 친구 이외의 기존의 친구(37.0%)와 어울리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35.0%)와 어울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구 없이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2.6%)이 여성(11.2%) 비해 다소 높았다.

표 II-24. 학업중단 후 주로 어울리는 친구(선후배 포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기존의 학교 친구	학교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새로 사귄 친구	친구를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 지냄	모름/무응답
전체	2,522	20.8	33.9	29.9	11.9	3.5
남성	1,278	22.7	37.0	24.9	12.6	2.8
여성	1,244	18.8	30.7	35.0	11.2	4.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46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이 아닌 장소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65.5%이고,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친구 집(61.4%)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PC방 등(34.6%), 원룸·쪽방·고시원 등(24.0%)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집 이외의 장소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여성(69.6%)이 남성(61.6%)에 비해 높았다.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거주한 장소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친구 집(남성 57.3%, 여성 66.8%)이 가장 많았으나, 이 외에 여성은 원룸·쪽방·고시원(31.1%), 보호시설(25.7%), 모텔·여관(25.6%) 등을 많이 이용한 반면, 남성은 PC방(44.5%), 원룸·쪽방·고시원과 모텔·여관(각각 22.7%)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주거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25. 학업중단 후 본인의 집 외 거주한 장소(복수응답)

(단위: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친구 집	PC방 등	원룸, 쪽방, 고시원 등	모텔, 여관	보호 시설	찜질방 등 거리 생활	가출팸과 생활	그룸홈, 사설	지하철 또는 기타	기타	
전체	65.5	34.5	61.4	34.6	24.0	26.3	17.9	19.9	6.4	5.2	2.8	1.3
남성	61.6	38.4	57.3	44.5	22.7	22.7	15.5	19.2	3.9	3.2	2.6	0.8
여성	69.6	30.4	66.8	21.6	31.1	25.6	25.7	16.2	9.7	7.9	3.1	1.9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95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경험한 불이익에 대해 버스승차나 공원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공모전에서 참가자격이 학생으로 되어있어 참가하지 못했던 경험(11.2%), 취업 시 학생이 아니라서 자격 제한을 받은 경험(8.7%) 순이었다.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음을 제외한 나머지 차별 경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6. 학업중단 후 차별경험(불이익 경험)

(단위: 명, %)

항목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버스승차나 공원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돈을 더 많이 낸 경험	전체	2,522	27.5	72.4	0.0
	남성	1,278	24.4	75.6	0.0
	여성	1,244	30.7	69.2	0.1
공모전에서 참여자격이 학생만으로 되어있어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전체	2,522	11.2	88.7	0.1
	남성	1,278	7.2	92.7	0.1
	여성	1,244	15.3	84.6	0.1
취업 시 학생이 아니라고 자격 제한을 받은 경험	전체	2,522	8.7	91.2	0.1
	남성	1,278	7.6	92.2	0.2
	여성	1,244	9.8	90.2	0.0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음	전체	2,522	5.9	93.9	0.1
	남성	1,278	7.2	92.6	0.2
	여성	1,244	4.6	95.3	0.1
대학진학 시 학생이 아니어서 내신 관련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	전체	2,522	7.3	92.6	0.1
	남성	1,278	5.1	94.8	0.2
	여성	1,244	9.5	90.4	0.1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48~352 재구성.

최근 한 달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에 대해 휴대폰·스마트폰으로 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취미생활(34.2%), 컴퓨터(게임이나 웹서핑 등)(28.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컴퓨터(게임이나 웹서핑 등)를 했다(남성 41.6%, 여성 15.7%)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학원에 다녔다(남성 9.2%, 여성 15.4%),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남성 20.5%, 여성 30.7%),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남성 18.4%, 여성 23.6%)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II-27. 최근 한 달간 하루에 많이 했던 일(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휴대폰/ 스마트 폰 (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취미생활을 했다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돈벌이 (직장, 아르바 이트 등)를 했다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전체	2,522	60.8	34.2	28.9	25.5	25.1	21.0
남성	1,278	60.5	35.6	41.6	20.5	27.5	18.4
여성	1,244	61.2	32.7	15.7	30.7	22.7	23.6
구분	사례수	TV 시청을 했다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학원에 다녔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기타	
전체	2,522	18.5	16.5	12.2	12.0	7.0	
남성	1,278	19.2	18.3	9.2	13.3	5.2	
여성	1,244	17.8	14.7	15.4	10.7	8.9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53-354 재구성.

* 주) 표에 제시되지 않은 그 외 응답으로는 '집안일을 했다'(10.3%), '종교 생활(교회/절/사당 등)을 했다'(9.3%),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모임(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했다'(6.7%), '지역사회 기관(수련관/복지관/공부방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6.6%), '기타'(7.0%) 등이 있음.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9%이고, 남성의 52.7%, 여성의 51.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1.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8.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522	51.9	48.1
남성	1,278	52.7	47.3
여성	1,244	51.0	49.0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55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장 오래 지속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피자 및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의 서빙·카운터·배달(19.9%), 분식점 및 중국집 등에서의 서빙·카운터·배달(17.8%), 카페 및 주점 서빙(9.2%) 순이었다. 남성은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23.6%), 분식점 및 중국집 서빙·카운터·배달(14.1%),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8.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분식점 및 중국집 서빙·카운터·배달(21.8%)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16.0%), 카페 및 주점 서빙(12.5%)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9.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기타	카페 (커피숍) 및 주점 서빙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24시간 편의점 점원	일반 상점 판매원	그 외	모름/무응답
전체	1,308	19.9	17.8	9.5	9.2	7.2	7.1	4.8	21.5	2.9
남성	673	23.6	14.1	9.5	6.1	8.4	5.2	3.4	26.9	2.9
여성	635	16.0	21.8	9.4	12.5	5.8	9.1	6.2	16.2	2.9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56~357 재구성.

* 주) 그 외 응답으로는 '퀵서비스 배달'(4.6%),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3.8%),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3.2%), '공장 노동'(1.8%), '이·미용이나 네일아트 등'(1.7%), '건설현장 노동'(1.3%), '키즈 카페·수영장 등에서 안전요원'(1.0%),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1.0%), '이벤트 행사장도우미'(0.9%), '단란주점 등'(0.7%), '마트 등에서 주차안내 요원'(0.7%), '주유소 주유원'(0.4%),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0.3%), '배우'(0.1%) 등이 있음.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당 평균 근로한 날은 4.5일이었고, 1일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시간당 평균 임금은 8,311.8원이었다.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1일 평균 근로시간은 7.8시간, 시간당 평균 임금은 8,517.0원이었고,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3일, 1일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 시간당 평균 임금은 8,098.3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0.4일,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짧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418.7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0. 주당 평균 근로일수

(단위: 명, %, 일)

구분	사례수	3일 미만	3일 이상 5일 미만	5일 이상 6일 미만	6일 이상	평균
전체	1,298	18.0	20.2	30.3	31.5	4.53
남성	667	15.0	18.4	30.0	36.7	4.74
여성	632	21.2	22.2	30.6	26.0	4.3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58 재구성.

표 II-31. 1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1,308	17.6	40.4	25.7	15.7	0.6	7.31
남성	673	12.6	37.7	29.7	19.2	0.8	7.83
여성	635	22.9	43.2	21.4	12.0	0.5	6.76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59 재구성.

표 II-32. 시간당 평균 임금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5천원 미만	5천원 이상 7,530원 미만	7,530원 이상 8천원 미만	8천원 이상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1,308	2.6	35.8	27.3	21.0	9.8	3.5	8311.78
남성	673	2.0	32.7	21.3	25.0	14.5	4.4	8517.01
여성	635	3.2	39.1	33.6	16.7	4.8	2.6	8098.31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60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50.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남성 51.3%, 여성 49.5%로 남성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1.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33.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전체	1,308	50.5	49.5
남성	673	51.3	48.7
여성	635	49.5	50.5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61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만 18세 미만일 때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부모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했다는 경우는 50.6%였다. 아르바이트 시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은 남성 50.3%, 여성 51.0%였다.

표 II-34. 아르바이트 시 부모동의서 제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제출했다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사항 없음 (만 18세 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1,308	50.6	34.8	13.3	1.3
남성	673	50.3	33.8	14.2	1.7
여성	635	51.0	36.0	12.3	0.8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62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를 평균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6개월 이상~1년(24.3%)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남성 29.7%, 여성 32.8%)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3.1%p 많았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6개월 이상 ~1년(남성 25.2%, 여성 23.3%)으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경우가 1.9%p 많았다.

표 II-35.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주 미만	1주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모름/ 무응답
전체	1,308	6.0	15.7	31.2	22.5	24.3	0.4
남성	673	5.0	16.9	29.7	22.8	25.2	0.4
여성	635	7.0	14.5	32.8	22.1	23.3	0.4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63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다고 응답한 경우가 25.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21.0%),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다(남성 21.0%, 여성 29.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20.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18.4%)는 응답 순인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23.3%),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21.8%)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서 모두 여자 청소년의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0%p 더 많았다(남성 3.1%, 여성 8.1%).

표 II-36. 아르바이트 시 경험

(단위: 명, %)

항목	구분	사례수	없다	한두 번	세 번 이상	모름/무응답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전체	1,308	78.9	17.1	3.9	0.1
	남성	673	79.8	16.9	3.3	0.0
	여성	635	78.0	17.3	4.6	0.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전체	1,308	79.1	11.3	9.5	0.1
	남성	673	81.6	11.2	7.2	0.0
	여성	635	76.5	11.3	12.0	0.2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다	전체	1,308	74.9	14.9	10.1	0.1
	남성	673	79.0	13.4	7.6	0.0
	여성	635	70.6	16.4	12.8	0.2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전체	1,308	86.9	9.0	3.9	0.1
	남성	673	87.5	8.6	3.9	0.0
	여성	635	86.4	9.5	3.9	0.2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전체	1,308	84.0	11.1	4.8	0.1
	남성	673	83.7	10.4	5.9	0.0
	여성	635	84.4	11.8	3.7	0.2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전체	1,308	97.1	1.9	0.9	0.1
	남성	673	96.0	2.6	1.5	0.0
	여성	635	98.3	1.1	0.4	0.2

항목	구분	사례수	없다	한두 번	세 번 이상	모름/무응답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전체	1,308	94.4	4.6	0.9	0.1
	남성	673	96.9	2.0	1.1	0.0
	여성	635	91.7	7.3	0.8	0.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64~370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2.8%였다. 16.5%는 부당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으며, 14.2%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9.1%), 주변인(가족, 친구, 지인 등)(4.9%)이나 상담소나 관련단체(1.1%)에 도움을 청하거나,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3.2%)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비율이 8.0%p 높았다(남성 28.9%, 여성 36.9%).

표 II-37.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참고 계속 일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전체	1,308	67.2	16.5	3.5	14.2	9.1
남성	673	71.1	13.3	3.2	12.3	9.1
여성	635	63.1	19.9	3.8	16.3	9.1
구분	사례수	주변인(가족, 친구, 지인 등)의 도움을 청했다	상담소나 관련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	기타	무응답
전체	1,308	4.9	1.1	3.2	0.4	0.2
남성	673	3.2	0.7	4.5	0.4	0.0
여성	635	6.7	1.5	1.9	0.4	0.4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71 재구성.

진로에 대한 발달수준을 측정하는 진로성숙도는 2.78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진로결정성 2.51점, 진로확신성 2.58점, 진로준비성 2.86점, 진로독립성은 3.24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진로성숙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하위요인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진로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진로확신성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남성 2.70점, 여성 2.45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진로준비성(남성 2.74점, 여성 2.98점)과 진로독립성(남성 3.20점, 여성 3.28점)이 높았다.

표 II-38. 진로와 관련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진로결정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	진로성숙도 (전체)
전체	2,522	2.51	2.58	2.86	3.24	2.78
남성	1,278	2.52	2.70	2.74	3.20	2.76
여성	1,244	2.50	2.45	2.98	3.28	2.79
t		0.81	7.95***	-8.85***	-2.97**	-1.73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29 재구성.

* 주 1) 4점 척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표 II-39. 본인 진로에 관한 생각

(단위: 명,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전체	2,522	11.9	38.0	32.9	17.2	0.0	2.55
	남성	1,278	11.5	38.6	32.9	17.0	0.0	2.55
	여성	1,244	12.2	37.5	32.8	17.4	0.1	2.55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 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전체	2,522	11.3	36.7	34.1	17.9	0.1	2.59
	남성	1,278	10.9	37.3	33.3	18.3	0.1	2.59
	여성	1,244	11.6	35.9	34.9	17.4	0.1	2.58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전체	2,522	15.5	44.5	25.3	14.7	0.0	2.39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남성	1,278	14.9	43.1	26.8	15.3	0.0	2.42
	여성	1,244	16.2	45.9	23.8	14.0	0.1	2.36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 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전체	2,522	14.3	36.1	40.5	9.1	0.0	2.44
	남성	1,278	17.8	39.7	35.1	7.5	0.0	2.32
	여성	1,244	10.8	32.4	46.1	10.7	0.1	2.57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전체	2,522	16.5	36.1	37.8	9.3	0.2	2.40
	남성	1,278	19.2	41.0	32.6	7.2	0.0	2.28
	여성	1,244	13.8	31.1	43.2	11.5	0.4	2.53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전체	2,522	5.3	20.8	48.8	25.1	0.0	2.94
	남성	1,278	7.6	23.2	47.1	22.1	0.0	2.84
	여성	1,244	2.9	18.3	50.5	28.1	0.1	3.04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전체	2,522	9.3	27.8	41.2	21.6	0.0	2.75
	남성	1,278	12.2	32.0	38.9	16.9	0.0	2.61
	여성	1,244	6.4	23.5	43.7	26.3	0.1	2.90
나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전체	2,522	5.5	22.5	48.7	23.2	0.0	2.90
	남성	1,278	7.7	26.0	47.1	19.2	0.0	2.78
	여성	1,244	3.3	18.9	50.3	27.4	0.1	3.0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전체	2,522	45.6	42.0	9.9	2.4	0.0	1.69
	남성	1,278	41.7	43.3	12.2	2.9	0.0	1.76
	여성	1,244	49.6	40.7	7.6	1.9	0.1	1.62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체	2,522	38.1	43.6	15.6	2.7	0.1	1.83
	남성	1,278	38.1	43.0	15.9	3.0	0.0	1.84
	여성	1,244	38.0	44.2	15.3	2.5	0.1	1.8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72~381 재구성.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중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35.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정규학교 복학(20.0%), 검정고시 준비(15.6%)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8.7%p 높았다(남성 39.3%, 여성 30.6%).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대체로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진학과 학업을 진로로 선택한 비율은 여성(50.2%)이 남성

(37.5%)에 비해 12.7%p 높고, 취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진로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22.9%)이 여성(18.7%)에 비해 4.2%p 높았다.

표 II-40.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정규학교로 복학 (대학 진학 포함)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진학하지 않고 취업 (창업)할 예정임	취업과 진학 병행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기타	무응답
전체	2,522	35.0	20.0	15.6	6.2	5.7	5.5	11.4	0.4
남성	1,278	39.3	15.4	12.7	6.5	5.9	5.7	14.2	0.3
여성	1,244	30.6	24.8	18.7	5.8	5.5	5.3	8.8	0.5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82 재구성.

* 주) '기타' 응답으로 '해외 유학'(전체 4.7%, 남성 5.0%, 여성 4.5%),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전체 3.4%, 남성 4.8%, 여성 2.1%), '대안학교 진학'(전체 3.3%, 남성 4.4%, 여성 2.2%) 등이 있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은 자아존중감 2.96점, 자기효능감 2.96점, 정서조절 2.55점으로 정서조절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아존중감(남성 3.05점, 여성 2.88점), 자기효능감(남성 3.03점, 여성 2.88점), 정서조절(남성 2.69점, 여성 2.42점) 모두에서 점수가 높았다.

표 II-41.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전체	2,522	2.97	2.97	2.56
남성	1,278	3.05	3.04	2.69
여성	1,244	2.88	2.89	2.43
t		6.01***	5.34***	8.81***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34 재구성.

* 주 1) 4점 척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표 II-42.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2,522	4.3	15.1	53.1	27.4	0.0	3.04
	남성	1,278	3.6	11.8	55.2	29.3	0.0	3.10
	여성	1,244	4.9	18.5	51.0	25.5	0.1	2.97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전체	2,522	4.5	21.5	51.9	22.0	0.0	2.91
	남성	1,278	3.5	17.9	54.2	24.4	0.0	2.99
	여성	1,244	5.5	25.2	49.6	19.6	0.1	2.8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전체	2,522	3.3	14.2	56.7	25.7	0.00	3.05
	남성	1,278	2.3	12.6	57.7	27.4	0.00	3.10
	여성	1,244	4.3	15.9	55.7	24.0	0.10	3.0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	2,522	6.0	19.0	51.0	24.0	0.0	2.93
	남성	1,278	3.8	16.4	52.5	27.4	0.0	3.03
	여성	1,244	8.2	21.6	49.5	20.6	0.1	2.8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전체	2,522	6.8	21.0	49.2	22.9	0.1	2.88
	남성	1,278	4.9	16.4	51.9	26.6	0.1	3.00
	여성	1,244	8.7	25.7	46.5	19.1	0.1	2.76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전체	2,522	3.0	12.4	57.8	26.6	0.1	3.08
	남성	1,278	2.6	10.9	57.1	29.3	0.1	3.13
	여성	1,244	3.5	14.0	58.5	23.8	0.2	3.03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전체	2,522	4.4	22.2	49.8	23.5	0.1	2.93
	남성	1,278	3.5	17.5	52.8	26.2	0.1	3.02
	여성	1,244	5.3	27.1	46.7	20.8	0.1	2.8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체	2,522	5.3	23.2	50.9	20.5	0.1	2.87
	남성	1,278	4.2	19.2	53.4	23.1	0.0	2.96
	여성	1,244	6.4	27.2	48.4	17.9	0.2	2.78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전체	2,522	13.5	38.0	35.1	13.2	0.1	2.48
	남성	1,278	11.6	34.9	37.7	15.8	0.0	2.58
	여성	1,244	15.5	41.2	32.5	10.6	0.2	2.38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전체	2,522	12.7	38.1	35.6	13.5	0.1	2.50
	남성	1,278	8.2	31.7	42.8	17.2	0.1	2.69
	여성	1,244	17.4	44.7	28.2	9.7	0.1	2.30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전체	2,522	8.9	29.2	46.7	15.2	0.0	2.68
	남성	1,278	7.1	25.4	48.7	18.8	0.0	2.79
	여성	1,244	10.7	33.1	44.6	11.5	0.1	2.57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84-394 재구성.

학업중단 청소년은 우울감(2.31점)을 불안감(2.16점)보다 높게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우울감(남성 2.15점, 여성 2.47점)과 불안감(남성 2.01점, 여성 2.32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심리상태(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우울	불안
전체	2,522	2.31	2.16
남성	1,278	2.15	2.01
여성	1,244	2.47	2.32
t		-9.21***	-9.51***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38 재구성.

* 주 1) 4점 척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표 II-44.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심리상태

(단위: 명,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외롭다	전체	2,522	26.2	31.5	31.0	11.2	0.0	2.27
	남성	1,278	33.0	31.4	25.6	9.9	0.0	2.12
	여성	1,244	19.3	31.6	36.6	12.5	0.0	2.42
기분이 울적하다	전체	2,522	25.3	29.6	34.6	10.5	0.0	2.30
	남성	1,278	32.9	32.7	26.3	8.2	0.0	2.10
	여성	1,244	17.6	26.4	43.1	12.9	0.0	2.51
허무한 느낌이 든다	전체	2,522	24.5	27.9	35.1	12.5	0.0	2.36
	남성	1,278	30.0	27.0	32.6	10.5	0.0	2.24
	여성	1,244	18.8	28.9	37.8	14.5	0.0	2.48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전체	2,522	27.0	34.6	27.6	10.7	0.0	2.22
	남성	1,278	34.0	35.9	22.2	7.9	0.0	2.04
	여성	1,244	19.8	33.4	33.2	13.6	0.0	2.41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전체	2,522	30.7	36.1	23.5	9.7	0.0	2.12
	남성	1,278	37.2	37.0	19.1	6.8	0.0	1.95
	여성	1,244	24.0	35.3	28.0	12.7	0.0	2.29
긴장이 된다	전체	2,522	29.3	36.1	25.8	8.8	0.0	2.14
	남성	1,278	33.9	37.4	22.0	6.7	0.1	2.01
	여성	1,244	24.5	34.7	29.7	11.1	0.0	2.27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395~400 재구성.

최근 한 달 동안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고, 주 1일(16.2%), 주 5일 이상(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45.4%)이 남성(28.6%)에 비해 16.8%p 높아 여성의 신체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표 II-45. 최근 한 달 동안,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주당평균 일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이상
전체	2,522	36.9	16.2	12.8	12.1	6.4	15.6
남성	1,278	28.6	16.1	13.6	15.2	8.0	18.4
여성	1,244	45.4	16.3	12.1	8.9	4.7	12.6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401 재구성.

학교를 그만둔 후 비행경험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은 음주 경험이 전체의 59.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흡연(48.9%), 음란물 보기(37.5%), 자살생각(29.5%), 가출(20.3%) 순으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살생각(남성 23.6%, 여성 35.6%), 자살시도(남성 9.7%, 여성 14.9%), 문자나 카톡, SNS 등으로 폭언 또는 괴롭힘(남성 2.8%, 여성 7.7%), 성적인 놀림(남성 2.1%, 여성 5.6%), 성폭력(남성 0.9%, 여성 3.7%) 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학업중단 후 피해 및 비행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음란물 (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전체	2,522	48.9	59.9	37.5	29.5	12.2
남성	1,278	59.3	65.6	52.5	23.6	9.7
여성	1,244	38.3	54.0	22.1	35.6	14.9

구분	사례수	약물(마약류) 복용	본드 및 부탄가스 등 흡입	가출	성매매	집단따돌림을 당함
전체	2,522	2.0	2.2	20.3	2.7	4.4
남성	1,278	2.2	2.2	20.2	2.3	3.3
여성	1,244	1.7	2.3	20.4	3.1	5.4
구분	사례수	문자나 카톡, SNS 등으로 폭언 또는 괴롭힘을 당함	돈(사이버/게임머니 등 포함)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김	심하게 언어맞음	성적인 놀림을 당함	성폭력을 당함
전체	2,522	5.2	2.0	4.9	3.9	2.3
남성	1,278	2.8	2.2	4.7	2.1	0.9
여성	1,244	7.7	1.8	5.1	5.6	3.7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406~420 재구성.

* 주) 해당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가 39.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28.0%),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무기력함(24.0%), 부모와의 갈등(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어려움이 없다(남성 32.3%, 여성 21.4%)고 응답한 경우가 10.9%p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하다(남성 6.8%, 여성 6.4%)고 응답한 경우가 0.4%p 높았다. 여성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항목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7.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	어려움이 없었음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부모와의 갈등
전체	2,522	39.6	28.0	26.9	24.0	23.9
남성	1,278	33.7	23.9	32.3	20.9	21.4
여성	1,244	45.6	32.1	21.4	27.3	26.5
구분	사례수	일(아르바이트 포함) 하고 싶는데 일을 구하기 어려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어디에도 소속 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그 외
전체	2,522	18.1	15.6	14.9	12.9	33.9
남성	1,278	15.1	12.1	10.3	9.5	28.7
여성	1,244	21.1	19.1	19.6	16.4	38.9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421~422 재구성.

* 주) 그 외 응답으로는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9.9%, 남성 7.6%, 여성 12.2%), '건강이 안 좋음'(전체 9.9%, 남성 7.8%, 여성 12.0%),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전체 6.6%, 남성 6.8%, 여성 6.4%), '지낼 곳 찾기의 어려움'(전체 3.1%, 남성 2.6%, 여성 3.6%),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전체 1.8%, 남성 1.6%, 여성 1.9%), '기타'(전체 2.6%, 남성 2.3%, 여성 2.8%) 등이 있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중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88.2%), 청소년상담복지센터(71.5%)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남성은 84.8%, 여성은 91.6%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II-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쉼터
전체	2,522	71.5	88.2	15.0	47.3
남성	1,278	67.2	84.8	16.1	41.4
여성	1,244	75.9	91.6	14.0	53.3
구분	사례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전체	2,522	12.7	14.5	26.8	16.5
남성	1,278	12.4	13.8	24.4	14.9
여성	1,244	13.0	15.2	29.2	18.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423-430 재구성.

* 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경우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86.2%), 청소년상담복지센터(60.3%), 청소년동반자(4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남성 81.8%, 여성 90.5%), 청소년 동반자(남성 39.0%, 여성 46.9%) 등의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한 반면, 남성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남성 60.8%, 여성 59.9%), 내일배움카드(남성 38.0%, 여성 34.3%), 취업성공패키지(남성 38.5%, 여성 31.0%) 등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쉼터
전체	2,522	60.3	86.2	42.6	33.7
남성	1,278	60.8	81.8	39.0	37.5
여성	1,244	59.9	90.5	46.9	30.6
구분	사례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전체	2,522	23.2	28.7	34.5	36.0
남성	1,278	25.4	31.4	38.5	38.0
여성	1,244	21.1	26.2	31.0	34.3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431-438 재구성.

* 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3.55점)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3.31점), 내일배움카드(3.23점), 취업성공패키지(3.15점) 및 청소년동반자(3.1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남성 3.48점, 여성 3.60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남성 3.27점, 여성 3.34점) 등의 지원 시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내일배움카드(남성 3.27점, 여성 3.19점), 취업성공패키지(남성 3.17점, 여성 3.14점), 청소년동반자(남성 3.19점, 여성 3.11점), 청소년쉼터(남성 3.15점, 여성 2.95점)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50. 도움을 받은 정도

(단위: 명,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됐다	도움 안 됐다	조금 도움 됐다	매우 도움 됐다	모름/ 무응답	평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체	1,088	2.8	6.5	47.7	43.0	0.0	3.31
	남성	522	2.3	6.9	51.9	38.8	0.0	3.27
	여성	566	3.2	6.1	44.0	46.8	0.0	3.34
꿈드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전체	1,918	1.2	2.6	34.2	57.3	4.7	3.55
	남성	886	1.9	3.4	36.2	52.5	5.9	3.48
	여성	1,032	0.7	1.9	32.4	61.3	3.7	3.60
청소년 동반자	전체	161	6.8	11.7	40.5	40.4	0.6	3.15
	남성	80	8.7	9.6	34.4	46.1	1.3	3.19
	여성	81	5.0	13.8	46.5	34.7	0.0	3.11
청소년쉼터	전체	401	10.0	10.5	38.1	35.2	6.2	3.05
	남성	198	8.0	10.9	34.4	40.9	5.8	3.15
	여성	203	12.0	10.1	41.6	29.5	6.7	2.9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전체	74	10.5	21.7	25.2	42.6	0.0	3.00
	남성	40	10.8	17.2	20.6	51.4	0.0	3.13
	여성	34	10.2	27.0	30.5	32.3	0.0	2.85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전체	105	7.4	20.3	37.8	32.5	2.1	2.97
	남성	55	7.5	17.9	35.8	37.4	1.3	3.05
	여성	50	7.2	22.9	40.1	27.0	2.9	2.89
취업성공패키지	전체	233	6.8	11.6	41.0	40.6	0.0	3.15
	남성	120	6.1	9.7	45.4	38.9	0.0	3.17
	여성	113	7.5	13.8	36.4	42.4	0.0	3.14
내일배움카드	전체	150	6.2	11.9	34.3	46.9	0.8	3.23
	남성	72	2.7	12.4	40.4	44.5	0.0	3.27
	여성	78	9.4	11.4	28.5	49.1	1.5	3.19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439-446 재구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검정고시 준비 지원(2.95점), 건강검진 제공(2.94점), 진학정보 제공(2.88점) 및 각종 질병 치료(2.88점), 진로탐색 체험(2.86점)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건강검진 제공(2.82점)이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으로 검정고시 준비지원(2.80점), 각종 질병치료(2.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은 검정고시 준비지원(3.10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건강검진 제공(3.07점), 진로탐색 체험(3.0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질병치료와 관련된 필요를 높게 느끼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검정고시 준비나 진로탐색 체험과 관련된 필요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본 설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더 호의적이며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5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1) 학업/진로/직업

(단위: 명,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름/무응답	평균	t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전체	2,522	37.9	30.5	25.1	6.6	0.1	2.00	-2.23*
	남성	1,278	38.6	32.1	23.6	5.7	0.0	1.96	
	여성	1,244	37.2	28.8	26.5	7.4	0.1	2.04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전체	2,522	13.9	17.4	45.4	23.4	0.0	2.78	-9.50***
	남성	1,278	18.4	20.6	42.8	18.1	0.0	2.61	
	여성	1,244	9.3	14.0	48.0	28.8	0.0	2.96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 학교 등)	전체	2,522	12.5	15.1	44.3	28.2	0.0	2.88	-10.04***
	남성	1,278	16.2	19.3	43.1	21.4	0.0	2.70	
	여성	1,244	8.6	10.7	45.7	35.1	0.0	3.07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지원	전체	2,522	11.1	13.4	45.0	30.5	0.0	2.95	-8.04***
	남성	1,278	14.6	14.9	46.2	24.4	0.0	2.80	
	여성	1,244	7.5	11.8	43.9	36.7	0.1	3.10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름/무응답	평균	t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대안교육 제공 (여행, 캠핑, 상담 등)	전체	2,522	14.1	22.2	41.0	22.6	0.0	2.72	-8.23***
	남성	1,278	18.3	25.4	37.7	18.7	0.0	2.57	
	여성	1,244	9.8	19.0	44.5	26.7	0.0	2.88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전체	2,522	11.8	17.9	43.1	27.2	0.0	2.86	-10.23***
	남성	1,278	15.7	22.8	40.3	21.2	0.0	2.67	
	여성	1,244	7.8	12.9	46.0	33.3	0.0	3.05	
직업교육훈련	전체	2,522	12.6	18.2	43.8	25.3	0.0	2.82	-9.60***
	남성	1,278	17.0	22.1	40.2	20.6	0.0	2.64	
	여성	1,244	8.0	14.2	47.6	30.2	0.1	3.00	
근로 중 피해에 대한 보호	전체	2,522	19.6	25.4	33.7	21.2	0.1	2.57	-7.84***
	남성	1,278	24.2	28.2	30.1	17.4	0.1	2.41	
	여성	1,244	14.9	22.4	37.3	25.1	0.2	2.73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전체	2,522	14.7	25.3	39.9	20.2	0.0	2.66	-6.36***
	남성	1,278	18.8	26.3	37.1	17.8	0.0	2.54	
	여성	1,244	10.4	24.2	42.7	22.7	0.1	2.78	
개인 맞춤형 교육 또는 직업훈련 보장	전체	2,522	13.5	20.9	44.0	21.3	0.1	2.73	-9.00***
	남성	1,278	18.2	24.0	40.7	17.0	0.1	2.57	
	여성	1,244	8.8	17.8	47.4	25.8	0.2	2.90	
청소년 전용 일자리 제공	전체	2,522	12.2	18.4	42.4	26.9	0.0	2.84	-7.72***
	남성	1,278	15.9	21.3	40.1	22.7	0.0	2.70	
	여성	1,244	8.5	15.6	44.7	31.2	0.0	2.99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전체	2,522	12.9	20.0	43.5	23.5	0.1	2.78	-10.26***
	남성	1,278	17.7	24.1	39.8	18.5	0.0	2.59	
	여성	1,244	8.1	15.8	47.4	28.6	0.2	2.97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훈련받는 지역사회 직업장	전체	2,522	15.2	25.5	39.1	20.2	0.0	2.64	-10.50***
	남성	1,278	20.1	30.5	34.0	15.4	0.0	2.45	
	여성	1,244	10.2	20.4	44.4	25.1	0.0	2.84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75, pp.447-459 재구성.

* 주 1) 4점 척도.

주 2) * α .05, ** α .01, *** α .001.

표 11-5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2) 건강/상담/복지

(단위: 명,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모름/ 무응답	평균	t
건강검진 제공	전체	2,522	9.1	16.2	46.4	28.3	0.0	2.94	-6.74***
	남성	1,278	12.1	18.2	45.3	24.3	0.1	2.82	
	여성	1,244	5.9	14.1	47.6	32.4	0.0	3.07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전체	2,522	10.1	18.9	44.1	26.8	0.0	2.88	-5.92***
	남성	1,278	13.2	20.7	42.1	23.9	0.1	2.77	
	여성	1,244	6.9	17.1	46.2	29.9	0.0	2.99	
성교육 제공	전체	2,522	17.6	29.1	32.9	20.4	0.0	2.56	-7.19***
	남성	1,278	22.0	31.3	29.8	16.9	0.1	2.42	
	여성	1,244	13.1	26.9	36.0	24.0	0.0	2.7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제공	전체	2,522	13.0	20.6	41.0	25.4	0.0	2.79	-10.26***
	남성	1,278	16.9	25.3	39.0	18.8	0.0	2.60	
	여성	1,244	9.1	15.7	43.1	32.2	0.0	2.98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	전체	2,522	20.4	30.0	32.1	17.5	0.0	2.47	-6.60***
	남성	1,278	23.8	32.6	29.5	14.0	0.0	2.34	
	여성	1,244	17.0	27.3	34.7	21.1	0.0	2.60	
인터넷(게임, 스마트 폰 등) 중독 치료 지원	전체	2,522	23.7	32.8	29.5	14.0	0.0	2.34	-4.47***
	남성	1,278	26.5	34.0	27.4	12.1	0.0	2.25	
	여성	1,244	20.8	31.6	31.7	15.9	0.0	2.43	
메시지 등을 통한 실 시간 맞춤형 상담 혹은 정보 제공 및 인터 넷 사이트 운영	전체	2,522	21.4	33.4	31.9	13.3	0.0	2.37	-6.97***
	남성	1,278	25.3	36.1	28.0	10.7	0.0	2.24	
	여성	1,244	17.3	30.7	36.0	15.9	0.0	2.51	
상담사가 찾아오는 방문형 상담	전체	2,522	24.7	35.4	27.7	12.2	0.0	2.27	-4.30***
	남성	1,278	27.2	36.1	26.7	10.0	0.0	2.19	
	여성	1,244	22.0	34.7	28.7	14.5	0.1	2.36	
가족복지지원(가정 방문을 통한 가족문제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전체	2,522	24.1	33.4	29.7	12.7	0.1	2.31	-3.75***
	남성	1,278	26.5	34.8	27.7	10.7	0.3	2.23	
	여성	1,244	21.6	32.0	31.8	14.7	0.0	2.39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75, pp.460-468 재구성.

* 주 1) 4점 척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표 II-53.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3) 활동

(단위: 명,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름/무응답	평균	t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전체	2,522	16.0	24.9	37.2	21.9	0.0	2.65	-7.79***
	남성	1,278	20.6	27.2	34.1	18.2	0.0	2.50	
	여성	1,244	11.4	22.6	40.5	25.6	0.0	2.80	
체육 활동 지원	전체	2,522	14.8	22.0	38.6	24.4	0.1	2.73	-3.52***
	남성	1,278	17.7	21.1	38.4	22.8	0.0	2.66	
	여성	1,244	11.9	23.0	38.8	26.1	0.2	2.79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전체	2,522	14.9	21.6	37.8	25.6	0.1	2.74	-11.38**
	남성	1,278	20.0	27.7	32.6	19.6	0.1	2.52	
	여성	1,244	9.7	15.4	43.1	31.8	0.0	2.97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자유공간' 제공	전체	2,522	15.5	22.0	37.6	24.8	0.1	2.72	-9.08***
	남성	1,278	20.6	25.3	33.3	20.8	0.0	2.54	
	여성	1,244	10.3	18.6	42.0	29.0	0.1	2.90	
야간 및 휴일에 개설되는 프로그램	전체	2,522	16.4	25.0	35.9	22.7	0.0	2.65	-8.90***
	남성	1,278	21.1	28.2	33.1	17.5	0.1	2.47	
	여성	1,244	11.7	21.6	38.7	28.0	0.0	2.83	
청소년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전체	2,522	12.9	19.1	37.3	30.7	0.0	2.86	-8.03***
	남성	1,278	16.8	21.7	35.9	25.5	0.0	2.70	
	여성	1,244	8.9	16.5	38.7	35.9	0.0	3.02	

출처: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75, pp.469-474 재구성.

* 주 1) 4점 척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

본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정리하면서 성별 현황 및 애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성별 선호가 크게 작동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고등학교 1·2학년 시점에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50% 이상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학업중단의 사유는 상당히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학교 “부적응”의 사유가 가장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해외출국”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중은 약 20% 정도로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한 체계적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고민 상담은 부모님, 친구 등과 가장 많이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교사와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여학생은 31.7%로 남성 25.8%보다 월등히 많고 10% 내외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교사, 학부모, 친구, 상담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민을 의논하고 결정을 신중히 하는 경향성이 다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남학생들에 비해 학교의 의미,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 심리·정신적인 문제, 왕따 등의 교우 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부하기 싫은 단순한 욕구보다는 그 외의 정신적인 어려움과 학교 이외의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원하는 또 다른 욕구가 더 많다고 판단된다.

학업중단숙려제 시 상담을 받았던 기관이용 빈도가 높은 곳은 Wee클래스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학교 생활에서 교사로부터 받는 도움은 여학생이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한 부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해 여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후회와 관련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우관계의 기회 부족, 교복 착용에 대한 기회 상실,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 소속감의 상실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그러나 후회만큼이나 만족하는 내용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학업중단 이후 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는 진로상담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50.7%가 진로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이들은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업중단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학업중단 이후 차별과 관련한 사례는 특별히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다. 공공서비스 이용 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학업 중단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카톡,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의 절반가량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배달과 서빙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당수가 1일 평균 5~1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적어도 30% 미만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조사 결과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비중이 50% 내외이며, 아르바이트 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약 50%만이 부모 동의하에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전 노동의 실태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희롱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8%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은 참고 일을 계속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는데, 참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유의미하게 낮으나 진로준비나 진로독립에 대해서는 그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정규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열망이 남성에게 비해 높아서 지속적인 상담 등의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학업중단 이후 제도권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높은 집단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남성에게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에서 유난히 인색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으며 향후 진지한 계획과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서비스의 지역사회 개선을 통해 이런 여성들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여성들의 제도권 진입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공한다면 남성에게 비해 더 높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이라 예측할 수 있다.

○ ————— 제3장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과 지원요구

- 1.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 2.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정의와 분석틀
- 3. 유형별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 4. 유형별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지원요구
- 5. 소결

1.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1) 조사개요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관련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경험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쉼터 입소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적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지원방안을 청취하고자 쉼터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⁵⁾.

표 III-1. 심층면접조사 실시 현황

구분	사례 번호	1차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면접조사)	2차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조사방법(장소)
학교 밖 여성 청소년	1	2020.9.3(목). 13시	2020.9.17(목). 14시	온라인 대면(집)
	2	2020.8.27(목). 13시	2020.9.17(목). 15시 30분	온라인 대면(집)
	3	2020.8.27(목). 15시	2020.9.18(금). 14시	온라인 대면(쉼터)
	4	2020.8.26(수). 13시	2020.9.18(금). 15시 30분	온라인 대면(쉼터)
	5	2020.9.4(금). 15시	2020.9.18(금). 17시	온라인 대면(집)

5) 담당자 1은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사례 3과 4가 입소해 있는 쉼터의 담당자이며, 담당자 2는 사례 7이 입소해 있는 쉼터의 담당자임.

구분	사례 번호	1차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면접조사)	2차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조사방법(장소)
	6	2020.8.28(금). 13시	2020.9.21(월). 10시	온라인 대면(집)
	7	2020.9.1(화). 11시	2020.10.6(화). 15시 30분	온라인 대면(쉼터)
	8	2020.9.18(금). 14시	2020.10.6(화). 16시 30분	온라인 대면(집)
쉼터 담당자	담당자1	-	2020.9.23(수). 16시	온라인 대면(쉼터)
	담당자2	-	2020.11.19(목). 16시	온라인 대면(쉼터)

모든 심층면접조사에 연구자 2명 모두 참여하였으며, 조사는 사례 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에 앞서 연구의 취지와 결과의 활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사항을 고지한 후 녹음과 조사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심층면접 도중 녹음이 불편한 경우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렸다.

당초 연구계획은 본 연구가 협동연구로 참여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에 올해 신규 질적 패널로 참여하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총 16명 중에서, 여성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남성 청소년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이에 따라 성인지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위기 여성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심각한 COVID-19 상황에 따라 청소년 관련 기관의 휴관 등으로 인해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을 위한 청소년 참여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고, 대면 심층면접 실시에 대한 우려로 패널 구축 및 조사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본 연구의 2차 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달 받는 대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인 여건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쉼터 입소 여성 청소년을 일부 포함하여 최대한 여성 청소년의 위기, 취약상황을 드러내는 대상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일반적인

학업중단, 학교 밖이라는 이슈 외에 위기 여성 청소년이 당면할 수 있는 위기로서 성매매, 젠더폭력, 임신·출산 등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2차 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기' 등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위기 경험 유형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신규패널 면접조사와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바, 질적 패널조사의 특성상 면접내용이 상당히 상세한 점, 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보는 1차 면접 결과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한 중복적인 질문을 제외하는 대신 여성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구술하도록 할 수 있었다. 표 III-2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신규패널 면접조사의 내용이며, 표 III-3은 본 연구의 2차 조사 주요 내용이다.

표 III-2. 학교 밖 청소년 신규패널 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정보	· 성, 연령, 거주지역, 최종 학교를 그만둔 시기 · 부모 및 가정 배경 · 현재 주로 하는 일
현재생활	· 현재 하고 있는 일: 학업, 취·창업 준비, 일·아르바이트 경험, 무업 시 일정 · 현재의 하루 일과: 자유 시간(수강, 근무 등 외 시간), 기상/취침시간, 오전/오후 일정 등 ·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계획 및 현재 하고 싶은 일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 현재의 주요 관심사나 고민(진로, 가족, 친구, 경제적 어려움, 건강, 거취나 생활 문제 등)

구분	주요 내용
학업중단 경험과 이후 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사유 및 결정 과정(부모 포함 주변인 반응) · 학업중단 후회 경험, 학업숙려제 기간 동안의 경험 포함 ·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영향: 학업, 취업 준비, 일 경험 및 기간 등 · 학업중단 변화의 의미(긍정적, 부정적 변화 모두) · 학교중단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불만족 내용
자신에 대한 생각(정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생각: 자존감, 정체성, 스스로 만족/불만족 여부, 자신의 문제점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의 역할 혼란 등) · 의욕/동기 수준: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 무기력 이유
미래/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계획 및 희망하는 직업과 이를 위한 준비 여부와 그 이유 · 진로를 결정하는 기준, 진로 준비에 관한 사항 구체화(진로 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5년 후, 10년 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관계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중한 사람 영향 미친 사람 등 · 부모(갈등), 교사, 또래와의 관계 · 이외에 중요한 관계: 지원기관의 사회복지사, 교사 등 · 학업중단 이후 인간관계의 변화 유무 및 이유, 만족/불만족 · 사회적 고립감
지역사회 지원과 사회 일반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공간적 범위(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경험과 인식 · 지역사회에서 도움 경험: 학교중단 후 지원요청 여부, 도움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지역사회 지원 경험: 지원기관, 구체적인 내용, 지원/정보 경로,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유무 및 내용, 도움 여부 및 내용,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선점 · 사회에 대한 인식: 학생이 아닌 이유로 받은 차별 등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구체적인 위기 경험과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 앞으로의 계획과 지원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심층면접조사에서는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학업중단 관련 인식, 학업중단과 관련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지원요구 등 자신들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실제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한 기본적 질문을 토대로 하되, 1차 결과에 따라 개별 사례의 특수한 경험과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시간적 제한 등에 따라 1차 조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학업중단 사유 및 결정 과정’을 회고하면서 위기 경험이나 젠더이슈와 관련된 경험이 드러나면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III-3.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학업중단 경험	· 학업중단 이유 · 학업중단 당시 학교 및 가족생활 · 학업중단에 대한 학교와 주변인의 반응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 학업중단 이후의 주요일과(일상 및 학업/경제활동 등의 경험) · 학업중단 이후의 관계(가족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 지원기관 등) · 학업중단 이후 경험한 어려움 ·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으로서의 어려움
학업중단 관련 인식	· 학업중단에 대한 본인의 생각 · 학업중단 이후 주요 변화 · 향후 계획(진로 및 미래 전망)
지원요구	· 학업중단 이전·이후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 대상 필요한 지원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녹음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고 개별 사례별로 정리한 후 가정환경, 학업중단 관련 경험별 사례 비교를 통해 공통적인 경향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각 사례의 특징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3) 조사 참가자 특성

학교 밖 여성 청소년 대상 2차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총 8명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연령은 만 16세부터 19세까지로, 16세 1명, 17세 3명, 18세와 19세가 각 2명이다. 인터뷰에 참가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가 6명으로 많고, 대도시가 2명이다. 이들의 학업중단 시기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2학년 2명, 중학교 3학년이 1명이다.

표 III-4.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가자의 주요 기본정보

구분		사례 수(명)
전체		8
연령	만 16세	1
	만 17세	3
	만 18세	2
	만 19세	2
거주지역(규모)	대도시	2
	중소도시	6
학업중단 시기	중학교 3학년	1
	고등학교 1학년	5
	고등학교 2학년	2

1~2차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특성을 주요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사례 번호	연령	동거가족 등 가정환경	거주지	학업중단 시기	학업중단 경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하는 일
1	17세	부모, 남동생 1명	대도시	'20년 7월 (당시 고1)	- 중2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 공황장애 발현 이전 안 좋은 소문과 시선,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	꿈드림, 검정 고시 및 청소년 모임 지원	검정 고시 준비 중
2	18세	부모 별거 중, 부와 남동생 2명	중소도시	'19년 5월 (당시 고1)	- 초6부터 중2까지 학교폭력(무리로부터의 따돌림) 피해 - 남학생 다수 특성학교 진학 후 문제 남학생들의 여성비하 발언, 문제 남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의욕 저하 등	꿈드림, 검정 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인턴십(카페) 경험, 대학 진학 준비 중

사례 번호	연령	동거가족 등 가정환경	거주지	학업중단 시기	학업중단 경험	자원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하는 일
3	19세	모의 가출과 부의 자살로 조부모, 삼촌 2명과 동거, 조부모 사망 등으로 쉼터 입소	중소 도시	'18년 (당시 고2)	- 중2 학교폭력(카스저격)으로 자해, 자살 시도, 우울증 - 고2 친구와의 갈등으로 자퇴	쉼터	미용 관련 직업훈련 수강, 검정고시 준비 중
4	17세	부모 이혼, 조모, 부, 여동생 1명, 부와 종교 관련 극심한 갈등으로 쉼터 입소	중소 도시	'20년 3월 (당시 고1)	- 중2 심한 집단따돌림 - 원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 부적응	쉼터	검정고시 준비 중
5	16세	부모, 동생 1명	중소 도시	'19년 7월 (당시 고1)	- 중1 학교폭력(집단따돌림, 괴롭힘) - 기숙형 고등학교 진학 후 친구 관계 어려움 등 학교 부적응과 학업 수행 부진 등으로 자퇴	꿈드림,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대학 진학 준비 중
6	17세	부모, 동생 2명	중소 도시	'19년 4월 (당시 중3)	- 초5부터 자퇴 전까지 학교 폭력(따돌림과 괴롭힘) - 자퇴는 부모 권유	꿈드림,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카페 인턴십, 청소년운영위원장, 동아리 활동	국비 지원 학원 수강 계획
7	19세	가정폭력 피해자 (해리성 기억 상실증, 가정 관련 언급 불가)	중소 도시	'19년 1월 (당시 고2)	-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감·회의감	쉼터 입소	-
8	18세	부모, 오빠 1명	대도시	'19년 4월 (당시 고1)	- 중2 학업 관련 압박감과 강압적인 교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 - 고1 진학 후 비자교복과 할형한 상의 착용 주장으로 학생·교사와 갈등 - 교사의 공개적인 괴롭힘	꿈드림, 검정고시 지원	대학 진학 준비 중

2.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정의와 분석들

1)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정의

정책적 분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위기 청소년’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⁶⁾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하며, 동법 제14조에 의거 생활 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은 “가정·경제문제, 심리적 장애 등으로 학업·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교육부, 2019.5.17: 5)이다.

OECD(1995)는 위기 청소년이란 “학교 부적응·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으로, 성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회에의 기여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황순길 외, 2016: 5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성과 학업중단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는 바, ‘학교 밖’과 ‘위기’ 개념을 단순하게 등치시키지 않고자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가정, 경제문제,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6)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2019.3.19. 법률 제15988호, 2018.12.1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200000#>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이 바로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이며 본 연구는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2)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에 대한 분석 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은 가정, 경제문제,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분석 틀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 부적응 경험과 가정환경의 구조적 어려움을 위기 수준을 구분하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들의 경험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1) 가정환경의 영향 분석

본 조사에 참여한 8명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형제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4명(사례 1, 사례 5, 사례 6, 사례 8), 부모의 별거로 부와 형제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명(사례 2), 쉼터에 입소해 있는 경우가 3명이다(표 III-5 참조).

우선 부모, 형제 등과 살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4명 모두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답하였으며, 이들 모두 1차 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가족이나 부모님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부모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례 5와 6의 경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성적도 안 좋아지자 모가 자퇴를 권유하거나 허용한 경우로, 꿈드림도 부모의 소개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례 1, 사례 5, 사례 6, 사례 8, 모두 현재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거나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진학을 준비 중이다.

사례 2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별거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고등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선택이 진학한 고등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사례 2〉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작했을 때, 여름방학 끝나고 그 시기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다른 이유도 설명 없이. 그래서 너무 전날까지만 해도 되게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니까 처음에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 그리고 아빠도 아무래도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셨었어요. 둘이서 같이 돈 버는 양이랑 혼자 버는 양이랑은 다르다 보니까. 원래 여름방학까지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해 주고 원서를 써야 될 시기에 갑자기 특성화 고등학교를 했던 거거든요.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돕고 싶었던 사례 2는 검정고시 합격 이후 아버지가 대학진학을 권유하자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례 2 역시 본인을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은 아버라고 말하고 있다.

〈사례 2〉 아버지가 일용직 일을 하세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데 그냥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한테 도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한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 검정고시 합격하고 나니까 대학교 수능 봐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대학을 가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대학을 가고 싶긴 했는데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버시고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 또 돈이 드는데 먼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 아버지가 먼저 말해줘서 대학 갈 생각을...

하지만 앞서 현재 경제적, 정서적으로 가정의 지원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전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견된다. 사례 1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 학교생활이 힘들었을 때 엄마의 우울증으로 정서적인 지원이 불가능했음을 토로하였다.

〈사례 1〉 그런데 제가 아프기 전에 엄마가 먼저 아팠어요. 엄마도 우울증이 있으신데, 동생 때문이었거든요. 동생이 ADHD 판정 받고 그거에 충격 받으시고 우울증이 오셔서. 제가 3학년 때 선생님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ADHD 판정 받았어요. 저는 선생님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뭐를 말하려고 하면, 엄마는 일단 자기 자신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저는 이상한 선생님이 하는 짓을 저 혼자 다 묵묵히 견디고.

사례 5는 중학교 때의 “학교폭력” 당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괴롭힘 당하는 건 끝이 났”던 경험도 있으나, 자퇴 당시에는 기숙형 고등학교와 집을 멀어 부모님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후회도 나타내고 있다.

〈사례 5〉 (상담이나 도움 요청을) 선생님께도 부모님께도 해봤는데 기숙사 학원인 데다가 지역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게 없었고 선생님은 그냥 저를 귀찮아하셨어요.

〈사례 5〉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요. 엄청. 고등학교 진학을 인문계로 갔다면 우리 지역 옆으로 갔다면 부모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한편, 사례가 많지 않아 충분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 지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례에서 오히려 사교육 지원과 성적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학생에게는 과도한 학업 부담감으로 작용하였고 이것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학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례 8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학업에 매진”하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더니 고등학교 진학 후 더 커진 학업 압박감으로 건강이 안 좋아져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8〉 정신적으로, 그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선생님들도 다 잡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되게 못 견디는 성향이거든요. ... 원래 위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게 돼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점점 더 압력을 가하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더 압력을 가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압력이 가해지고 가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래 안 좋던 위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사례 1의 경우도 사교육 중심의 거주지에 살게 되면서 엄마의 학업 압박이 심해지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사례 1〉 엄마한테는 크게 말은 안 하지만 우울증이 온 수많은 이유 중에, 분명히 엄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마 잘못이라고 탓할 수도 없는 게,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좋은 동네로 이사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 그런데 다 주변에서 공부시키려고 그랬구나, 이거랑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모임 같은 거 가면 엄마들이 다 학원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무의식 중에 가랑비에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압박이 심해졌고. ... 그래도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서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 그런데 이제 바로 막 몸에 증상 나타나니까 엄마가 다시 충격 먹고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사례 1〉 그냥 좀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압박을 주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저는 공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의식 중에 오는 압박이 있었으니까. 압박이 없어진다면 숨통이 트이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한편, 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이혼으로 부와 조모, 형제와 살았던 경우(사례 4), 모와만 살았던 경우(사례 77)가 각각

7) 사례 7의 경우 가족과 관련한 질문에는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기억을 못 한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쉼터 입소 전 가정환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웠다. 특히 사례 7은 2차 조사에서 형제관계에 대한 질문에 “형제가 꽤 여럿 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따로따로 불붙이 흩어져서 자랐던 것 같긴 해요”라고 대답하였고, 엄마, 아버와도 같이 살았다고 하였으나, 쉼터 담당자 심층면접 결과에 따라 자퇴 당시 모와만 살고 있었던 것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1명이며, 모의 가출과 부의 자살로 조부모, 삼촌 2명과 살았으나 조부모 사망 후 쉼터에 입소한 경우(사례 3)가 1명이다.

〈사례 3〉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키우실 생각이 없었나봐요. 그 때 당시에 엄마가 지금 나이로는 38살이고, 아빠가 40인데, 사고를 쳤으니까 철없을 수도 있었겠죠? 키울 생각이 없었는지 버리셔가지고, 아빠랑 해가지고 저를 키웠는데 아빠가 그때 당시에 카드빚이 많았나봐요.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가지고 어렸을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살게 되었어요.

〈사례 7〉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부모님들은 그냥 가해자 개념이라서, 무시하고 방임하고.

〈사례 7〉 (제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폭력 때문에 아파 있어서. (질문: 집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폭력 때문이에요?) 겨우 탈출했어요. 무서워서 그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요. 나오다가 쓰러져서 누가 다행히도 신고를 해줘서 119에 실려서 겨우 산거예요.

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도 각 개별 사례들이 처한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례 3과 사례 7은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도 위기 정도가 심각하며, 현재 가족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 사례 3의 경우 쉼터 입소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았으며, 삼촌이 용돈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나 안정적이지는 않았다. 정서적으로도 사례 3에게 삼촌은 “가장 소중한 사람”, “둘도 없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의논을 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담당자 1〉 사례3 같은 경우는 심리검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인지적인 부분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그건 아마 가정환경, 그러니까 양육 환경에서부터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된 양육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격차가 좀 있었어요. ... 유일하신 가족이 삼촌인데, 삼촌분 또한 지적 부분도 그렇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위험한 수준의 불안정 상태예요. ... 그래서 지금 사례3 같은 경우는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없어요.

〈사례 3〉 그런데 삼촌도 잘 몰라서, 집안 자체가 좀 약간 바보라고 해야 되나, 잘 몰라요. 그래서 삼촌도 약간 말 같은 것도 잘못하고.

사례 4는 다소 특이한 경우로, 종교활동에 대한 부의 반대로 원하지 않았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로 이어졌으며, 결국 부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사례 4〉 아버량은 정이 뚝 떨어져서 차라리 혼자 자립해 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쉼터로 오게 됐어요. 원래 계획은 일단 마음으로 독립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화가 나서서 짐 싸서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죠.

〈담담자 1〉 아버지가 아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아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 종교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떠한 지원도 힘들다고 뜻을 박았어요. ... 용돈 관련해서 아이가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용돈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확인차 저희 상담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고, 그런데 그 결과, 쓸 수 있다, 종교 버리면, 집에 돌아오면, 종교 버리고, 조건이 그거였고. 사례 4가 그 말 들은 즉시, 그러면 그냥 못 받는다는 거네요. 포기할게요. 안 받을래요.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8명의 가정환경과 위기 경험과의 관계는 가정의 지원이 안정적이어도 학교 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고, 각 사례별로 복합적인 감정과 판단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 지원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경우와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을 ‘가정 밖’과 ‘가정 안’의 위치 상황으로만 크게 구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 참여한 가정 안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 밖에 속하는 사례 3명의 경우 가족 지원이 부족하여 가정환경의 취약성이 보다 높음을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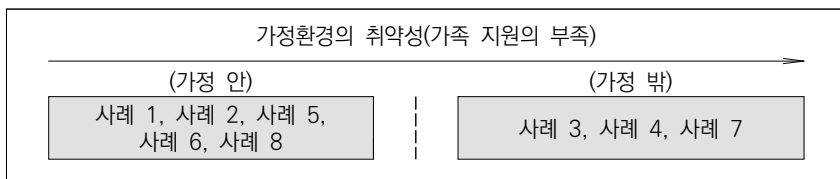


그림 III-1. 가정환경에 따른 구분

(2) 학교 부적응 및 학교(가정)폭력 경험 분석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 학업중단 당시 학교 생활, 학업중단에 대한 학교와 주변인의 반응 등에 대한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인 사례 7을 제외하고, 다른 7명 모두 따돌림,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의 경험은 해당 여성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인간관계에 신뢰를 잃게 하고, 심각하게는 건강까지도 악화시키며, 전공 및 대학, 직업 등 장래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사례의 당시 경험을 살펴보면, 사례 1의 경우 친분이 있었던 남학생이 자신을 “헤픈 여자”라고 안 좋은 소문을 낸 일을 시작으로 학교 친구들의 오해와 편견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전부터 앓았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져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도 “연예인 병”이라거나 “쇼”라는 수군거림을 겪었다. 학교 자체에 대해 싫은 것도 없고 선생들과도 사이가 좋았다는 사례 1은 결국 이를 못 견디고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1〉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애가... 저를 막 거의 생각 없이 되게 헤픈 여자처럼 말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 제가 남자애들이랑 되게 서슴없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거를 아까 그 친구처럼 헤픈 여자로 보는 경험도 있었고. ...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애들도 있었고, 되게 남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를 가식덩어리다, 내숭 떴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 ...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 가는 거를 보고, 저를 잘 모르는 애들이 ... 막 수군거리면서 재 연예인 병 걸렸다고. 그래서 난 이렇게 힘들어도 연예인 병이 되는구나 싶었죠. 애들이 다 쇼라고.

사례 8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에 교사의 괴롭힘까지 보고되어 학교폭력 경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례 8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압적인

교사와의 갈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사례 8에 따르면 학칙에도 허용되어 있는 교복바지를 교장, 교감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전교에서 혼자, 최초로 교복바지를 입고 다니자 교사들은 아침마다 벌을 세웠고, 몸에 꼭 맞는 여학생 와이셔츠가 불편하여 안에 흰 티셔츠를 입고 단추를 풀고 다니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닫아라. 무슨 여자애가 그러냐”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새로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도 예비소집일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전교생 앞에서 교복바지를 주장하여 학교의 눈총을 사고 학생들의 따돌림도 받았다.

〈사례 8〉 분위기가, 제가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첫 날 보고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반에 중심이 되는 무리가 있잖아요. 개네가 저를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따돌리는 게, 한 달임에도 느껴져서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 예비소집일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바지를 입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았는데,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으려요.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교의 선생님들한테 다 찍혔어요.

더욱이 사례 8의 경우 한 교사가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인 괴롭힘을 일삼았고 이에 대해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해당 교사와 중재 시도가 있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8〉 제가 그 선생님 수업 첫날에 즐려서 잤거든요. 그 후로 계속 전교에서 저만 괴롭히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이면 재 또 자는지 봐라 하고 아니면 아예 일어서게 하든지. 전교생이 모여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첫 날, 첫 대면에 자던 애다 라면서 왈가왈부하시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꾸 괴롭히셔서. ... 학교가 조금 더 나서서 중재를 했다면, 선생님의 공개적인 그런 괴롭힘에 중재를 하거나, 혹은 뭔가 변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았다면 다닐 마음은 있었겠죠. 조금 더 오래 다니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든지 했겠죠. 그런데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녀봤자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사례 2의 경우 이전의 학교폭력 경험이 현재의 학교 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주었

으며, 고등학교 진로 선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도 자퇴에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 사례 2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친했던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혼자가 되어 버린 경험이 학년마다 반복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Wee클래스 상담 지원까지 받았으나 정작 담임교사가 소극적으로 무마했다는 원망감이 남아있다.

〈사례 2〉 2학년 때는 뭔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든 제가 따돌림을 받고 있거나 이런 정도 이긴 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먼저 Wee클래스 가서 상담 받아서 말을 했었던데요. ...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은 뭔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례 2도 일부 문제 남학생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남학생들의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던 바, 학교 내 젠더갈등(문제)은 있었으나 사례 2에게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담배 냄새로 인해 친식이 심해지고, 문제 남학생들을 훈육하는 교사의 잔소리를 같이 들어야 하는 상황에 사례 2는 불만이 있었으나 젠더문제보다는 본인의 학업 수행 지속에 대한 회의감과 여학생이 소수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학교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2〉 그 반에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에 여자가 4명 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애들 4명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냥 앞에 대놓고 욕하진 않았는데 그냥 서로 속닥속닥거리면서, 간혹학과에는 여자애들이 많은데 우리 반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생겼냐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학교 나오고 나서 그 친구들 중에 2명은 소년원에 간 걸로 알아요. ... 학교 내에 남자 친구들이 많고, 뭔가 공부 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반에 이미 담배를 중학교 때부터 켜던 친구들이 많았었던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그 친구가 옆에 앉으면 담배 냄새가 너무 나서 처음에는 좀 불쾌했거든요.

사례 5와 사례 6 역시 무리로부터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자퇴를 결심한 경우이다. 이 두 명의 사례에서도 역시 학교는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등 갈등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Wee클래스와 담임교사의 역할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5〉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하고, 친구 관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낮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을 뿐 더러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 학기 초반에 보면 애들이 다 무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애랑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무리에서 하나를 빼요. ...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빠진 애'였어요. ... 저희 반에서는 거의 혼자나 다름없었거든요. 왕따를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없었어요. 반에서. ... 근데 저희 학교가 좀 많이 이게 분위기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이게 과장된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교폭력 같은 게 심해가지고.

〈사례 5〉 한자반에서 제가 남자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 나중에 해결되고 들어보니까 그냥 재 반에서 혼자 다닌다고 했지? 그냥 건드려볼까? 이렇게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자반 이동수업이면 한자반을 맡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그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자애들하고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 나중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를 '선생님은 모르고 있었는데 말해주지 그랬느냐' 하고 끝냈어요.

〈사례 6〉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일이, 이제 개네들하고 계속 같은 학교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돼서 중학교 자퇴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애가 우리를 먼저 뒷담화를 하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다는 식으로, 애네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온갖 다 붙여 놓고, 오히려 저를 혼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 되게 크게 무리 지어 다녀서, 조금 동조하는 애들까지 치면 한 40명까지, 무리가 꽤 컸거든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례 4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심하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친구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학교와 자신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며, 원하지 않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바로 3월에 자퇴를 한 경우이다.

〈사례 4〉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크게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짜여진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기도 하고, 일단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자퇴해서 혼자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학기 초에는 다 같이 성격을 모르고 처음 만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성격을 최대한 맞춰 가면서 했는데, 한 5월 달부터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그전에 그거를 극복해보려고 그냥 같이 다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대놓고 싫다고 그러고. 한 번은 불려가서 얘기도 하고 뒤에서든 앞에서든 제 험담을 하니까,

따돌림 경험에 대해 사례 4도 중학교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사례 4〉 학교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공통된 거는 그냥 화해 잘 해서 같이 친하게 지내라, 이거였고, 학교 선생님도 그냥 너희 때는 그런 게 많다고, 서로 맞춰가면서 잘 지내라고 그러셔서, 결론은 도움이 별로 안 됐고.

사례 3은 심각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례로, 보호체계가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쉼터에 입소한 사례이다. 사례 3은 어릴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구성원 간 가정폭력을 목격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음주 등의 일탈행동 경험이 있으며 학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심해 자해, 자살 등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사례 3〉 중학교 때 제가 친구랑 안 좋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 카스가 유행이었는데 그걸로 제가 저격을 당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차에도 뛰어들고 아파트도 올라가고 자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 이제 고등학교 와서 또 애들이랑 트러블 생겨서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 그냥 애들이랑 사이 좋고, 즐겁게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으면은 다닐 생각이 계속 있었을 텐데, 애들이랑 너무 트러블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 학교 가면은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사례 7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가정에서 탈출하여 쉼터에 입소한 경우로, 현재 해리성으로 기억이 단절되어 관련 경험에 대해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퇴 당시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부모가 동의 절차에 참여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상세 상황은 불확실하고, 학업중단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강한 반감만을 표현하였다.

〈사례 7〉 너무 아이들의 생각을 차단하고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싶어서, 자퇴를 하고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상에서 살펴본 8명이 경험한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 경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그대로 학교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가 학생들이 당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무관심, 무기력하며, 학업중단 예방의 역할은커녕 학업중단의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경험 역시 그 심각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은 동일할 수 있으나 교사의 괴롭힘과 쟁터갈등(문제), 건강 악화 등의 요인이 더해진 학교폭력 경험을 보다 심각한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 구분에서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경험의 심각성 정도가 자동적으로 각 사례의 청소년들이 겪은 아픔과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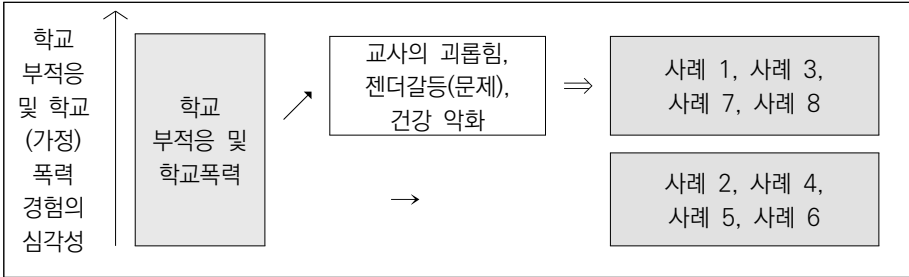


그림 Ⅲ-2. 학교 부적응 및 학교(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구분

(3)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위기 경험 유형화

이상의 분석을 거쳐 다음의 그림과 같이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상단부는 학교·가정폭력 경험의 심각성이 높은 경우이며, 우측은 가정환경의 취약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에 따라 상단부의 A와 C유형은 학교·가정폭력 경험의 심각성이 높은 가운데, A유형은 현재 여성 청소년이 가정 안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반면 C유형은 가정환경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재 가정 밖 여성 청소년인 경우이다. 상단에 있으면서 우측에 있는 C의 경우 위기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단부의 B와 D유형은 상대적으로 학교·가정폭력 경험의 심각성이 낮은 편인 가운데, B는 가정 안에 있으며, D는 가정 밖에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화가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과 그들의 경험을 도식화할 수 있다는 위험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다차원의 요인들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복잡한 인간의 경험을 제한된 시간에 참가자가 재구성한 것이므로 각

유형은 상호배타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둘째, 총 8명에 불과한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조사 결과임에도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환경이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 주체적으로 학업 중단 등을 선택하는 여성 청소년의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 넷째, 각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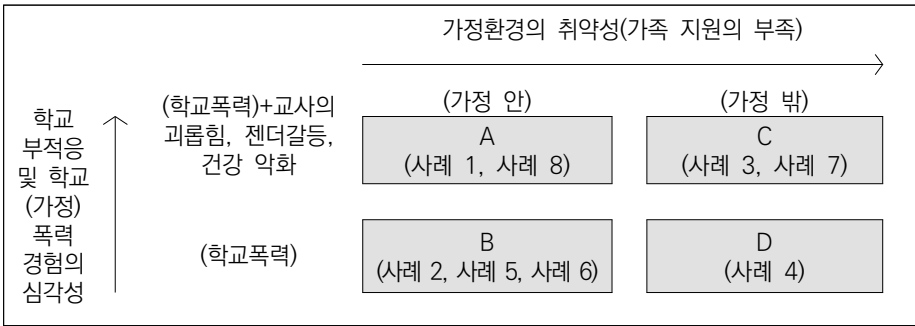


그림 Ⅲ-3.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가자의 위기 경험 유형화

3. 유형별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1) A유형의 생활경험

A유형은 사례 1과 사례 8의 공통적 특성을 유형화한 영역으로, 해당 여성 청소년이 경험한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의 정도가 심하고, 이러한 경험은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일정 정도 가족의 지원과 정서적 지지하에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의미한다.

전술하였듯이 A유형의 경우 B유형의 사례들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사례 1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례 8도 스트레스에 의해 위 관련 건강이 악화되었다. 두 사례 모두 학업중단 이후 일정 정도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 등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사례 1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상담 치료는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각 사례의 현재 생활과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사례 1의 경우 현재 꿈드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사례 8은 고졸 검정고시 통과 후 과외를 받으면서 집에서 혼자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례 8은 꿈드림 담당자로부터 교육청 청소년위원회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참여를 권유받았으나 청소년위원회의 학교 청소년, 남성 청소년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중학교 때도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끼리 책이나 기사를 함께 읽고 토론을 했었다는 사례 8은 꿈드림이 있는 건물에 있는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스쿨페미니즘연합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꿈드림센터에서 토크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결성, 참여하고 있는데, 동아리 역시 백래시, 페미니즘, 여성인권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거나 같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다. 전술하였듯이 사례 8은 여학생의 교복치마와 몸에 붙는 교복 상의 착용을 거부하여 학교, 교사 등과 갈등을 겪었던 경우이다.

〈사례 8〉 저는 지금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이제 청소년 참여 위원회라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둘째 치고, 거의 모든 결정권을, 학교를 다니는 남자 청소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죠. 처음 느꼈어요. 아 남자 청소년이 기득권자구나 라는 거를. ... 권유가 들어와서 보러 갔다가, 분위기가 너무 남성 청소년 쪽으로 치우쳐 있길래, 나왔어요. ... 그래서 이제 00여성단체에서 제가 00스쿨페미니즘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사례 8은 꿈드림, 동아리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해결되던 식사비가 들고 학교 학생일 때보다 경제적으로 돈이 더 필요해졌다고 하였다. 이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하였으나 미성년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점을 밝히면 상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학교도 안 다니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믿고 맡기냐”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례 8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으며, 자퇴, 검정고시 등이 이후 자신의 미래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사례 8〉 확실히 아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나 모든 부분에서도 전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그게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례 8〉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사회적 시선의 부담이 적을 텐데, 나는 검정고시라고 딱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이익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걱정,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긴 해요.

사례 1 역시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덜 해졌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갈 시간에 밖에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 1〉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덜 한데,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밖으로 돌아다니면, 애는 뭐지 라고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 진짜 코로나가 좋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례 1〉 불편한 거는 요즘에 크게 없는데, 아침 일찍 밖에 돌아다니면, 좀 보는 시선은 있어요. 특히 같은 학생들끼리. 어른들은 이제 어떤 애가 온라인 수업이고, 어떤 애가 저건지 모르는데, 같은 학생들끼리는 온라인 수업 요즘 안 할 텐데,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쟈 모지? 이런 거는 있어요.

한편, 부모와의 약속으로 검정고시 준비가 최우선이 되고,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례 1은 외로움이나 자퇴 후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학교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1〉 (학교를 나와서 아쉬운 게 있다면)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는 거? 그거랑 수학여행, 수련회 못 가는 거. 물론 아가 인간관계도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자리를 피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특히 사례 1의 경우 연기학원도 다니고 싶고, 성우가 되고 싶어서 관련 학과로 대학진학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웠던 시간과 자퇴의 경험이 미래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제한을 주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사례 1〉 대학에 큰 뜻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몸이 힘들어서 고등학교도 자퇴 했는데 대학교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아직은 계속 들고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 대학에 큰 그제 없어요.

〈사례 1〉 물론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완전히 정상인처럼 행동하진 못할 것 같아서. 예전에 밝았던 모습, 완전히 밝았던 모습으로는 아마 못 돌아갈 것 같아요.

2) B유형의 생활경험

B유형은 사례 2, 5, 6의 학업중단 경험의 공통적 특성을 유형화한 영역으로, 이들은 학교에서 일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학업 수행의 어려움 등이 있어 학업중단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세 명의 사례 모두 현재 가족의 지지 하에서 검정고시와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각 사례의 현재 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사례 2의 경우 자퇴에 영향을 주었던 고등학교 진학 시기 갑작스런 모의 가출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모가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2는 자퇴 후 꿈드림을 지역의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은 특이한 경우이다. 동생이 동네 형들에게 휘말려 편의점 절도로 경찰서에 가게 됐고, 당시 부가 출장으로 부재하였기 때문에 사례 2가 보호자 역할로 갔다가 해당 경찰을 만났다. 학교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집단따돌림을 경험했던 탓으로 사례 2는 인간관계를 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어 꿈드림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으나, 경찰이 재차 권유하여 결국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사례 2〉 먼저 경찰관 분이 저를 만났을 때 꿈드림이라는 시설을 다니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한 번 더 물어봤던 말이에요. ... 그때 꿈드림이라는 시설을 알고 있긴 했는데, 그 꿈드림이라는 시설이 학교하고 뭔가 좀 비슷할 것 같았어요. 학교라는 시설은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 친구랑 어울리기 싫은데 뭔가 억지로 어울려야 되고,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꺼려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봐, 그래서 그것을 경찰관분한테 말해봤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가 거기에 등록하고 한 번 다녀보고 그래도 별로면 안 다녀도 되긴 하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등록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서.

코로나로 관련 운영에 한계는 있었으나 사례 2는 꿈드림을 통해 카페 인턴십 활동도 하고 검정고시 관련 지원도 받게 된 바,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서비스에 연계해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과 마찬가지로 사례 2도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미래계획에 학업중단 관련 경험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경험했던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대학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조별 과제나 공동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전공은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2〉 원래 선생님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하기에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하는 수업도, 수업은 괜찮은데 따로 하는 조별 과제 같은 것도 많고, 학교생활 외에 너무 할 게 많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준비해서 가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그 학교생활에서 뭔가 좀 적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례 5 역시 반복적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전학도 가지 않고 자퇴를 결심하게 된 경우였다.

〈사례 5〉 무리에서 퇴출되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학교를 가도 이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냥 거기서 똑같이. 어차피 학기 중에 들어가면 무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고 그냥 다른 학교에 가서 이런 거 반복할 바에 자퇴하자.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전학보다는. 그냥 학교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례 5의 경우 꿈드림을 모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관련 안내도 없었고 모가 자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관련 지원을 알게 되었다. 사례 5는 꿈드림을 통해 컴퓨터 자격증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 지원을 받았고, 대학 컨설팅, 체육 관련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꿈드림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신체활동, 단체활동을 선호하는 사례 5는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오전시간에 주로 개설이 되는 줘바와 요가학원에 다녔는데 성인여성들만 있어서 자퇴 후 또래관계와 소속감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례 6은 특히 학교를 그만두는 것부터 대학진학까지 가족의 지원이 적극적이었던 경우이다. 사례 6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학교생활에 힘들어했는데,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퇴를 하고 자격증을 따면 대학에 갈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바로 유명한 사설 기숙학원으로 보낸 경우이다. 하지만 6~8개월 동안 자격증 준비를 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그만뒀고, 꿈드림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다. 현재는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면서 디자인을 배우고 대학진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례 6의 경우 꿈드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학교에서 선두부였고 교사들과 사이가 좋았던 사례 6은 꿈드림에서도 청소년운영위원장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미술 관련 동아리도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꿈드림을 통해 카페 인턴십도 마쳤는데, 코로나로 학교 밖 청소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으나, 생일파티,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 행사 등을 다른 친구들과 기획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하기도 하였고, 인턴십 때 있었던 카페와도 요청이 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 사례 6은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대학 진학 멘토도 지정을 받아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관련 경험이 만족스러웠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6도 자퇴를 했다고 하면 술이나 담배, 폭력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례 6〉 제가 학교를 나와서 가끔씩 연락이 되는 주변 지인들이, 학교를 왜 자퇴했냐,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심한 경우에는 그냥 학교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건 심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학교 가라, 학교 나왔으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겠네? 누구 때려서 나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일일이, 나는 그냥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나왔다, 계속 내가 해명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조금 불편해서, 나는 잘못된 게 아닌데 계속 학교 밖을 나왔다는 이유로 약간 해명하는 식으로 계속 지인들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3) C유형의 생활경험

C유형은 사례 3과 7의 학업중단 경험 관련 공통적 특성을 유형화한 영역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중단의 사유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기인한 사례이다. 이 경우가 위기 정도가 가장 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각 사례의 현재 생활과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사례 3은 쉼터 입소 이후 쉼터에서 지원해주는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최근에 응시한 고졸 검정고시는 통과하지 못했다. 전술하였듯이 자살, 자해 경험이 있는 사례 3은 쉼터 입소 후 정신과 치료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사례 3의 쉼터 담당자에 따르면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심리상담의 효과가 없어서 상담치료는 잠시 중단한 상태이다.

〈사례 3〉 마음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증상이 나타나요. 목이 떨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요. ... 약간 사람들이 내 욕 하는 것 같고,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신경 쓰여서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든요.

〈담당자 1〉 사례 3은 지금 심리상담을 종결했어요. 심리상담을 해도 성과가 없어요. 약에 대한 의존만 높아졌어요. 약을 안 먹으면 증세 때문에 학원을 갈 수가 없대요. 약이 있어야 된대요. 저희가 상담을 했죠. 아이가 이렇다더라, 그랬더니 심리적으로 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 있잖아요. 비타민, 이런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처방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례 3은 되게 심해졌어요. 심리상담에 대한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약에 대한 의존도 늘었고, 자해 횟수가 증가했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돈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성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사례 3의 경우, 쉼터 입소 이전에는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있었으며 삼촌의 경제적 지원도 받았다. 쉼터 입소 전에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놀았다는 사례 3은 남자친구가 소년원에 가는 등 담당자 1의 표현대로 “문제행동을 일삼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한번 놀아본” 청소년으로서 앞서 가정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와, 같은 쉼터에 있는 사례 7과도 생활경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사례 3〉 늦게까지 놀고, 집에 들어오는데 막 밤 새벽 4시에 들어오고, 막 새벽 4시에 나갔다가 그랬는데. 여기는 쉼터잖아요. 규칙이 있으니까 몇 시에 들어와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맨날 놀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학원도 다니고 막 규칙적으로 밥도 먹고 혼자 왜냐면 원룸, 자취했을 때는 밥을 잘 안 먹었어요. 혼자 있으면. 그랬는데 이제 밥도 잘 먹고 있고, 해서 살도 찌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 같아요.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서 명품을 샀던 사례 3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한 이유도 40만원짜리 운동화를 사고 싶어서이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해주려 했으나 바닥이 대리석이 아니어서 거절을 했으며, 네일아트 학원도 SNS에 사진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어서, 장기적으로 사회화 교육과 학습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담당자 1〉 돈을 쓰던 아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익숙해질 수 있을까, 지금 사례 3이 믿고 있는 건 큰삼촌이 용돈을 보내준다고 했었어요. 이제 수급비가 끊기면 정식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보내주기로 했대요. 그거만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돈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후의 사례 3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지켜봐야겠죠. 관찰하고 지도하고 뭔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점을 또다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야겠죠.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쉼터에 입소하게 된 사례 7은 본인의 말에 의하면 해리성 기억상실증으로 가정 관련 언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보다는 영어공부나 장래 고민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7〉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머리가 새하얘져요. 아직 그 상처가 깊어서... 지금 사이코 드라마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정신건강학과에서 우울증 치료도 하고 있고.

〈사례 7〉 물론 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약간 문제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정고시보다도 BBC나 CNN, 이런 뉴스들 보고 우리나라 뉴스도 보면서 일단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서, 당장 검정고시 따서 취직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진짜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중한 문제는 없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 2에 따르면 사례 7은 쉼터 입소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차차 회복이 되어 가고 있으며, 정서적인 대인관계가 미숙하여 초기에는 쉼터의 다른 청소년들과 갈등이 많았으나,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담당자 2〉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아동학대를 호소하면서 집에 연락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가정 배경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례 7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만 살았는데 엄마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분노를 하고 불안해하고 왜 묻느냐고 화를 내고 그런 증상들이 심해서 한 3개월 동안은 거의 얘기도 못 했어요. ... 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조차도 엄마와 관련된 걸 물었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화를 내서 거의 3개월 동안 못 물어봤다고 하고. 저희도 지금 3개월 정도 데리고 있는데 이제야 조금씩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 3개월 정도 되어 가니까 아이가 차츰차츰 안정되어 가면서 계속 야간에는 약을 먹었거든요. 초반에는 밤에 잠을 못 자서 긴급 출동도 하고 숨을 못 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저녁에 약을 먹는 것도 약을 안 먹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할 때만 약을 먹을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됐고.

쉼터에서는 우선 사례 7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이후 사회성 훈련, 검정고시, 인턴십 등을 지원해서 본인이 대학진학이나 취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2〉 일단은 안정이 됐으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성 훈련을 좀 시키려고요. ... 정신건강 관련해서 사회성 훈련하는 기관과 연결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심리극을 집단으로 해야 하는데 사례 7만 처음으로 심리극을 1대 1로 1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어요. 일단은 다 풀어야 되니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1순위는 어찌됐든 정서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인턴십에 연결해서 바로 취업은 절대 어렵고, 본인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걸 경험하게끔 내년에 하고. ... 대학을 진학해도 좋고 아니면 직업을 선택해도 좋고. 좀 길게 보고 있어요.

4) D유형의 생활경험

D유형은 사례 4의 특성으로, 가정의 지지가 약하고 학업중단 관련 학교폭력 경험의 수위도 낮은 편인 사례이다. 사례 4는 자퇴 후 얼마 되지 않아 종교와 진로 문제로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집을 나오게 되었고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종교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례 4는 가정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이혼으로 모는 외국에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으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다. 돌봐주던 조모도 최근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모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 등 사례 4의 다른 언급이 없었다. 부는 직업 특성상 “손님” 같을 정도로 한 달에 1~2번 정도 집에 들르는 정도였다.

〈담당자 1〉 (사례 4는) 되게 똥똥해요. 똥똥하다는 게, 생각이 정말 깊어요. 때론 어른처럼 생각이 깊은 거, 성숙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성숙함이 때론 좀 마음 아픈 성숙함이겠죠. 아직 철이 들지 말아야 될,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됐었는데 그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음 아픈 성숙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아이 말에 의하면 어머니께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생계가. 그러니까 아이가 대부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 사례 4가 가족들하고 어떤 관계를 하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자기의 종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원도 못 받고 이곳에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겠죠.

현재 사례 4에게 있어 제일 소중한 사람은 쉼터 선생님과 쉼터의 언니들이며, 이전에는 교회 선생님이 꿈드림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었고, 교회 소모임도 사례 4에게 중요한 인간관계였으나, 코로나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사례 4의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때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을 새로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담당자 1〉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보다, 종교의 소모임을 가겠다 라는 말을 해서 저희가 그때 코로나가 심각해진 단계여서 소모임은 안 된다 해서 사례 4가 쉼터를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례 4〉 약간 그것 때문에 사람 친해지는 걸 좀 꺼려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면 좀 경계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학교를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친구랑 친해져야 하는데 처음에 경계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자취를 하고 싶었다는 사례 4는 코로나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검정고시 준비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4. 유형별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지원요구

1) A유형의 지원요구

전술하였듯이 A유형에 속하는 사례 1과 사례 8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교사와의 갈등 정도가 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젠더갈등, 건강 악화가 겹쳐 B유형보다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경험의 심각성이 높은 경우이다. 자퇴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학교폭력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 없었다면 학교를 그만둘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의 학업중단은 강제적인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사교육 기관이 밀집한 동네에 거주하고 가정의 학업 관련 지원이 압박감을 주어 학업중단 당시 건강문제에도 영향을 주었던 경우이다. 스스로 학업성적도 좋았다고 밝혔던 이들은 현재 가족의 지원하에 자격증,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의고사 등 수능 지원, 입시 관련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 등 학업 관련 지원요구가 높은 편이다.

본 조사 참가자가 쉼터 이외 각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선정된 만큼 이들 대부분은 자퇴 이후 비교적 빨리 센터로 안내되어 검정고시 및 자격증 준비, 동아리 활동, 인턴십 등을 경험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이제 좀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 이런 거를 자퇴한 애들은 거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나중에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의고사나 수능 입시 원서, 이런 거 자퇴생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학교 애들은 거의 학교에서 다 해 주잖아요.

특히 사례 8은 검정고시 점수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개선 요구를 하였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부 내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정해준다든가, 대학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경우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례 8〉 대학교 수시 지원을 하잖아요. 그때 학생부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검정고시생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학생부라든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접수처에 연락을 해서, 나는 검정고시를 본 사람인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밖에 지원을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낼 수 있는 학생부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문의를 하면 당황을 하더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대요. 그런데 그게 3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검정고시생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충분히 저 외에도, 많은 검정고시생들이 지원을 해봤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적당한 매뉴얼 조차 없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 검정고시생이 수시를 지원할 때, 학생부 대신에 낼 수 있는 그런, 공인 가능한 동아리라든지 혹은 활동들을 조금이나마 좀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 이외에는 못하니까.

〈사례 8〉 학교를 나오고, 1년 반 개월 정도, 그러니까 수시 지원 전까지, 그냥 살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써서 내시면 된다 라고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봉사를 알아서 다니는 거 이외에는 학교에서 증명해 주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거기서 되게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 적어도 제대로 된 매뉴얼, 혹은 지원서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교육부의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대학 현황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21.6%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6개 대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차별이 확인되었다(세계일보, 2020.9.30)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설계에 제한을 느끼지 않도록, 즉 청소년 시기 위기 경험이 성인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했다고 했던 사례 8은 직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를 강조하기도 했다.

〈사례 8〉 대도시니까 학군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 밖에 나간 저 같은 청소년 들한테는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오히려. 보수적인 지역이라, 되게 편견이 심하더라고요. ...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고정관념대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홍보,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망한다”며 자퇴를 말렸던 담임교사를 통해 이번 해에 받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색안경을 다 받은 것 같다고 했던 사례 1의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교사의 발언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이들이 사회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온 것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사례 8은 학교의 Wee클래스 상담이 본인의 학교폭력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도 상담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례 8은 상담 요구가 있었으나 저소득층이나 한가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으로 판단이 되었는지 상담 지원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사례 8은 꿈드림에서 학교

8) 세계일보(2020.9.30). 검정고시 출신 차별 여전... 32개 대학 수시 학종 지원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08474>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밖 청소년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지 본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례 8〉 저는 처음 말을 나눠 보고, 별로 상담해 줄 게 없다고 느꼈는지, 처음에 딱 갔을 때 자퇴했다는 얘기를 끝으로 상담 지원이 아예 없었어요.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넘기시는 것 같아서. 의견, 의사를 문도록,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래 라고 물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 선택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저소득층도 아니고 한가정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으로 판단이 되니까 상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배제를 하시더라고요. ... 꿈드림은 정말 그냥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경제적, 혹은 교육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상담은 아예 다른 파트로 넘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례 8〉 저도 정신적인 문제로 나온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 워센터에서도 자퇴 말고도 다른 상담도 받으면서, 힘드니까, 그런 종류의 상담을 받으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지만 이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래의 꿈드림 서비스 흐름도를 살펴보면, 초기상담 과정에서 사례 8은 교육 지원으로 결정이 된 경우가 될 텐데, 사례 8의 말처럼 담당자가 청소년이 상담을 원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의 실태조사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자퇴를 했더라도 해당 학생들은 사후에 학업중단의 이유로 건강, 성적 관리, 학교생활의 무의미함,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싶은 욕구 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상담 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의 필요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 또한 이전 Wee클래스 상담 경험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상담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낮아 당사자의 지원요구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담당자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이고, 청소년의 수요와는 별도로 정말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층적인 초기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제기된다.



출처: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index.asp>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꿈드림 서비스 소개.

그림 III-4 꿈드림 서비스 흐름도

2) B유형의 지원요구

B유형에 속하는 사례 2, 사례 5, 사례 6 역시 앞서 A유형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지지하에서 자격증, 검정고시, 대학진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특히 사례 2는 수능 준비를 위한 지원, 사례 6은 검정고시생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시 정보 등의 지원요구가 있었다.

〈사례 2〉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것에 관련된 교재, 문제집이나 그런 거를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6〉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는 진로, 대학입시 같은 정보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게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는과는 정해졌는데, 검정고시생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시 이런 거를 자료, 정보가 부족하니까 찾아보고 요즘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이들은 집단따돌림 등으로 학교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바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 2는 Wee클래스에서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따돌림 문제를 전달하였으나 담임교사가 무마해버린 경우였다. 사례 2에 따르면 당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회의 관심도가 높았던 시기여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니 할 일도 많을 것이라 서로 좋은 관계로 진전될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적당히 자신과 화해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례 2는 담임교사에게 부모님에게 본인의 어려움을 대신 알려주길 원하였으나 담임교사는 조치해주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사례 2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본인의 입으로 당시 힘들었던 경험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례 2〉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먼저 Wee클래스 가서 상담 받아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해줬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은 뭔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 Wee클래스에서 처음에 상담 받고 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받긴 했었어요. ... 이미 첫 번째 상담 때 다 말했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뭔가 놀이 같은 거 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사례 5 역시 Wee클래스에 괴롭힘으로 힘든 상황을 상담하였으나 별다른 도움이 없어 결국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였다. 사례 5에 따르면 담임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했지만 모른 척 한 거라고 의심이 들었고,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 담임교사가 공감을 해줬다거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례 5〉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왕따 일로 Wee클래스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Wee클래스에서도 그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는 것 빼고 도움이 됐던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 Wee클래스는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털어놓는 수준에서 그쳤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그걸 수가 없는 애들에게는 Wee클래스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제가 Wee클래스 선생님한테는 괴롭힘 당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던데요.

사례 6도 힘들었을 때 Wee클래스 상담을 받았으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을 했던 경우이다.

〈사례 6〉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이거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되니까 상담하는 애들이 많아져서 시간 조율이 힘들어서 못 받아봤거든요.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안 보인다고. ... 좀 실망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 사이의 이런 일을 제재도 못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듯 세 명 모두 따돌림으로 힘든 경우 본인이 스스로 Wee클래스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Wee클래스 상담이 문제가 되는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참고 견디라는 내용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학업중단 예방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례 5 역시 사례 8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현재 Wee클래스 상담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 받는 것이라는 일종의 낙인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사례 5〉 근데 솔직히 자퇴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좀 편견일 수 있는데. ... 내가 자퇴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그냥. 제가 시설은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런 시기에는 자기 말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 Wee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정신과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병원 가서 확실하게.

〈사례 5〉 Wee클래스의 평판이 일단 중학교 때도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평판이 이거거든요. 왕따 당하는 애들만 가는 데. 거기 가면 이게 평판이 더 안 좋아져요. Wee클래스를 다닌다? 애 왕따 당하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학폭위나 이런 걸 일으켜도 Wee클래스로 잡아가기 때문에 애는 좀 문제가 있는 애다 하면서 평판이 깎여요. 그래서 일부러 Wee클래스를 안 가는 애도 있어요. 그냥 혼자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그래서 Wee클래스에 대해서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인식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조치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강력한 조치를 희망하였다. 만연해진 학생들 간 따돌림과 괴롭힘에도 교사들이 무관심으로 대응할수록 가해 정도는 더 심해지고, 학교가 학교폭력과 자퇴 등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피해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6〉 이제 학교 선생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힘이 없는 경우, 애들이 조금 세계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나와서,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반응이 나오셔서,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 (Wee클래스 상담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안 보인다고. ... 좀 실망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되셔서 학생들 사이의 이런 일을 제재도 못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 6〉 조금 더 학교가 나한테 좀 더 도움을 줬었다면, 왕따 시킨 친구들하고도 조금 해결을 해 줬으면, 좀 더 자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사례 5〉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선생님 차원에서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것만. 대놓고 막고 막 칠판에 개 놀리는 거 막 써대고. 개 욕하고 패드립하고 그런 것만 없애도 반절은 자퇴하는 사람이 줄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막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 보는 앞에서 그 반에도 좀 남자애들 서열 싸움에서 밀린 어병한 애 놀리는 걸 막 써대는데 선생님이 그걸 안 막았어요.

특히 사례 5에 따르면 다음 학년 반 배정에서 가해자와 분리된 사례 2와 달리 다음 해에는 가해자 1명과 같은 반이 되었고, 다른 반이 된 가해자도 계속적으로 찾아와 “또 엄마에게 이를 거냐”며 사례 5를 괴롭혔으나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학년 때에는 가해자 5명 중 3명과 같은 반이 되어 사례 5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것이니 그냥 학교에 다니라고 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해주지 않았다.

〈사례 5〉 제가 못 참을 때가 됐을 때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거 이런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 근데 반 분위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1학기 때 저 말고 다른 왕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가 학폭위를 열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그 따돌림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 학폭위 무서워서 못 열겠으니까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만 멈추고 끝내고 싶다. 더이상 깊게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남자애들한테 경고만 주고 딱 끝낸 것 같아요. ... 그리고 그 후에 대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부탁했던 게 ‘개네들이랑 같은 반 안 되게 해주세요’ 였는데 가해자 중 하나랑 같은 반이 돼서 2학년을 올라갔어요.

〈사례 5〉 제가 그 2학년 때 3학년 반 배치가 나왔을 때 전화를 걸었어요. 학폭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분명 같은 반으로 안 묶어준다고 했는데 왜 3명이나 같은 반이 됐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학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지금 반 배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 그리고 대처가 미흡했던 게 또 보이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주동자 있잖아요. 가해자 5명 중에 주동자. 개가 번질나 게 저희 반에 드나들면서 애들 앞에서 대놓고 쪽을 주고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 또 엄마한테 이를 거냐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찾아오더라고요.

아울러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문제와 관련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서부터 점심시간, 체육시간에 주어지는 자유시간 등에서 혼자 긴 시간을 괴롭게 견뎌내도록 방치되고 있는 바, 단체활동이 많은 학교생활에서 배제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활동을 세심하게 조직할 필요도 제기되었다.

〈사례 5〉 솔직히 반에 친구가 없고 하는 애들이 시간을 때우는 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 그래서 핸드폰을 주면 그 시간이, 혼자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 그냥 핸드폰을 안 줘도 그냥 개네들이 쉬는 시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자유시간을 주면 개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날은 '놀아라' 라고 하면 그런 애들은 그냥 뭐 체육 시간에 책을 들고 가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체육관 한쪽에 구석에 앉아만 있는 거죠.

3) C, D유형의 지원요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C와 D유형은 학교 밖 청소년이자 가정 밖 청소년이다. 우선 C유형에 속하는 사례 4의 경우도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을 뽑아주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의 경우 아예 검정고시 출신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사례 4는 우선 내년에 검정고시에 응시할 계획이며 쉼터에서는 사례 4가 대학에 진학한다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사례 4〉 일단은 대학교 자체가 검정고시를 받아 주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고. ... 몇 번 찾아보기는 했는데, 저는 00학과 갈 거라서 00학과 위주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뉴앙스로 있으니까. ... 쉼터 선생님께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가자고, 등록금 같은 거는 후원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고, 등록금은 걱정 말고 원하는 대학교 가라고 하셨는데.

가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쉼터에서 생활 중인 이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의 요구가 크게 나타나는데, 사례 3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례 4와 사례 7 모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사례 3〉 기초생활수급자가 끊겨서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돈 때문에. ... 저 같은 아이들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담당자 1〉 지금 사례 3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끊기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전에 돈을 모아야 된다, 지금 이 생각밖에 없어요.

〈담당자 1〉 지금도 돈이 없다고 호소를 해요. 돈이 없고 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례 4 말에 의하면 자기가 따로 나가도 공간이 없고, 만나는 친구도 없으니까 여기 쉼터에만 있으니까 돈을 쓸 일이 없어서 안 쓰는 거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사례 7〉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미성년자 자체를 아예 안 받아 주니까, 대면 면접이 아예 안 됐죠. ... 코로나 되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면접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합격해서 일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끊기죠.

사례 7이 있는 쉼터의 경우 일주일에 3만원의 용돈이 지급되었던 반면, 사례 3과 사례 4가 있는 쉼터의 경우 교통비는 학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활동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현금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담당자에 따르면 쉼터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만났을 때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 교사들이 급식비를 아껴 용돈으로 지급해줄 계획을 갖고 있기도 했다.

〈사례 7〉 고등학생은 일단 쉼터 내에서는 일주일에 3만원 용돈을 주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루에 왕복비만, 그 정도 선에서만 버스비를 입금해 주시고. 피복비라고 해서 10만원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분기가 바뀔 때마다 나와요. ... 그래서 딱히 부족한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담당자 1〉 저희 쉼터 예산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 저희가 따로 받는 선생님들 교직비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밥을 같이 먹고, 매달 저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급식비로 쉼터에 납부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따로 모아놨어요. ... 아이들 후원금까지 보태서, 명절 때 아이들한테 인센티브식으로 용돈을 주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해요.

본 연구에 참여한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 사례 3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특이한 사례이며, 사례 4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종교문제로 가정의 지원이 중단된 점, 사례 7은 본 쉼터 입소 기간이 길지 않고 가정폭력 회복이 최우선인 시기인 점 등으로 인해 이들의 지원요구는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다른 유형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자립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지원요구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쉼터의 추천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게 된 점과 이들이 모두 현재 쉼터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사례 3은 쉼터 입소 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나 인지적인 문제 등으로 힘들어 했고 기초생활수급비로 명품을 사는 등 일반 쉼터 청소년들과는 다른 사례일 수 있었다. 사례 4도 종교문제로 가정의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통신비는 계속 부가 부담하고 있었고, 자립을 위한 주거 문제를 걱정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당분간은 검정고시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 사례 7은 정신과 치료 등 심리·정서적 회복이 최우선으로 쉼터에서 만 24세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5. 소결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관련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경험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구체적인 위기 경험과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학업중단 관련 인식, 학업중단과 관련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지원요구 등 자신들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성과 학업중단 사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밖’과 ‘위기’ 개념을 단순하게 등치시키지 않고자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가정, 경제문제,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이 바로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이며 본 연구는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분석 틀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 부적응 경험과 가정환경의 구조적 어려움을 위기 수준을 구분하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형화가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과 그들의 경험을 도식화할 수 있다는 위험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각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정책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우선 이들의 가정환경과 위기 경험과의 관계는 가정의 지원이 안정적이어도 학교 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고, 각 사례별로 복합적인 감정과 판단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지원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경우와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을 ‘가정 밖’과 ‘가정 안’의 위치 상황으

로만 크게 구분하였다. 가정 안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 밖에 속하는 사례 3명의 경우 가족 지원이 부족하여 가정환경의 취약성이 보다 높음을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인 사례 7을 제외하고, 다른 사례 7명 모두 따돌림,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의 경험은 해당 여성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심각하게는 건강까지도 악화시켰으며, 전공 및 대학, 직업 등 장래계획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경험 역시 그 심각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의 괴롭힘과 젠더갈등(문제), 건강 악화 등의 요인이 더해진 학교폭력 경험을 보다 심각한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 구분에서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경험의 심각성 정도가 각 사례의 청소년들이 겪은 아픔과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거쳐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지원요구는 가정 안과 가정 밖의 경우 전자는 학업 관련 지원요구, 후자는 경제적 지원요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는 한편, 대부분 지원요구가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그림 III-5 참조).

A와 B유형은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교사와의 갈등 등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이며 A유형의 경우 B유형의 사례들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두 유형은 일정 정도 가족의 지원 하에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부모의 이해와 지지하에 자격증,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등 수능 지원, 입시 관련 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등 검정고시 지원 이상의 학업 관련 지원요구가 높은 편이다.

D유형의 사례 4를 포함, A와 B유형에서 검정고시 점수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개선 요구를 하였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부 내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정해준다든가, 대학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경우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대학 현황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21.6%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6개 대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차별이 확인되어(세계일보, 2020.9.30)⁹⁾,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설계에 제한을 느끼지 않도록, 즉 청소년 시기 위기 경험이 성인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A와 B유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자퇴를 하면 인생 망한다거나, 자퇴를 했다고 하면 술이나 담배, 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을 겪었으며, 이를 통해 자퇴의 경험이 이후 자신의 미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자 가정 밖 청소년인 C와 D유형은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였고 경제·가정문제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례이다. C유형은 D유형에 비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경험의 심각성이 높고, 가정환경의 취약성도 높아 위기의 정도가 가장 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C와 D유형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자립 지원의 요구가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 상황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주거 등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유형

9) 세계일보(2020.9.30). 검정고시 출신 차별 여전... 32개 대학 수시 학종 지원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08474>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의 사례는 각각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커서 관련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 일부 쉼터의 여성 청소년은 친구와 만날 때 드는 식비나 교통비, 기타 사고 싶은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여 용돈 등의 현금 지원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인 지원요구로는 Wee클래스의 학업중단 예방 기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집단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 모두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상담 내용이 전달이 되도 담임교사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등 도움이 되는 조치를 경험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예방의 기능으로 Wee클래스에서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업중단 이후의 상담 지원요구도 확인되었다. 평범한 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있으므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이 필요한지 꿈드림의 초기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만연해진 학생들 간 따돌림과 괴롭힘에 학교 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학교가 이에 대해 무관심,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그대로 학교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의 역할은커녕 학업중단의 큰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의 젠더갈등(문제)도 학교 부적응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다. 사례 1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가 너 같은 애들이 룬살롱 같은 데를 다니게 된다는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며 초등학교 때 친했던 남학생이 중1 때 자신을 “헤폰 여자”라는 소문을 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져 따돌림을 당했다. 사례 2의 경우 남학생 25명 중 여학생은 4명인 상황에서, 문제 남학생들의 담배 냄새로 천식이 생기고,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듣는 등의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사례 8은 예비소집일

에 바지교복 허용 여부를 묻고, 교장 면담을 통해 처음 바지교복을 입은 학생이 되어 오히려 학교 내 교사와 또래들의 편견과 따돌림 등을 경험했다. 사례 6은 괴롭히는 무리 중 남학생들로부터 수업시간에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 4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례 8은 현재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또래 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젠더갈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관련 연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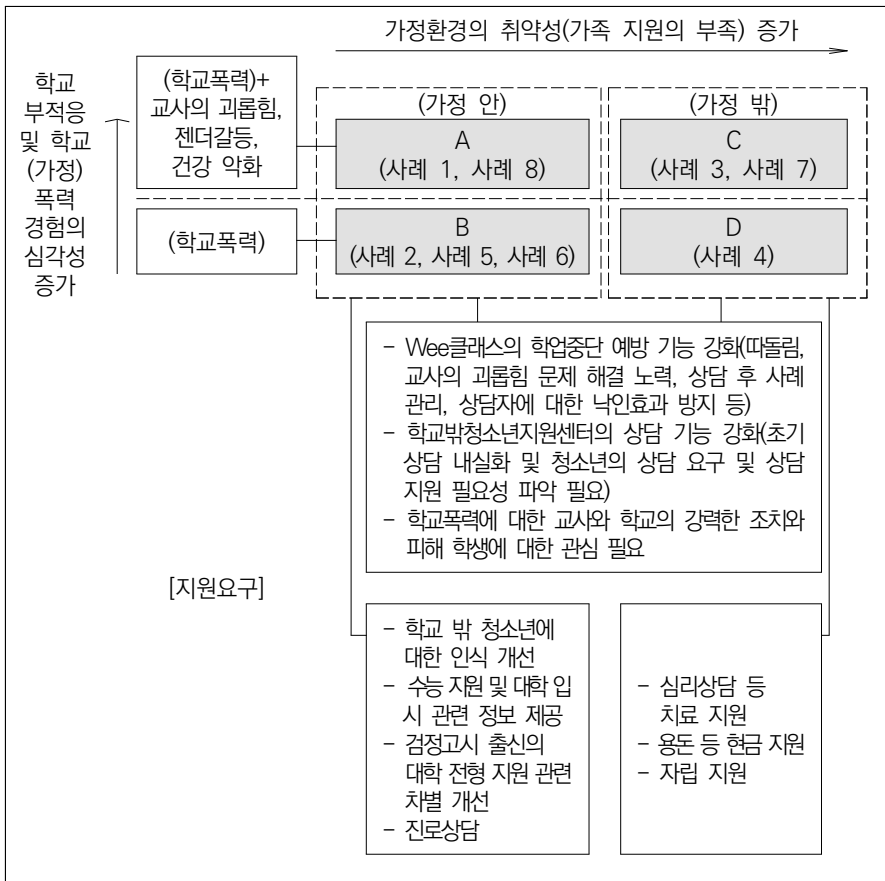


그림 Ⅲ-5.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참가자의 위기 경험 유형화와 지원요구

○ — 제4장 학교 밖 여성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지원방안

- 1. 요약
- 2. 정책과제

4

학교 밖 여성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지원방안

1.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연구로 학교를 중단한 여성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에 대한 양적 연구 검토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 분석 결과

우선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가 제공하는 학업중단학생 현황¹⁰⁾을 통해 살펴본 성별 현황과 관련한 개괄적 내용은 최근에 오면서 여학생의 학업중단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학업중단은 거의 자퇴로 인한 것이었는데, 특히 여학생은 약 50%, 남학생은 약 46% 정도가 파악할 수 없는 기타의 이유들로 자퇴하고 있었으며, 남녀 모두 자퇴의 기타 사유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는 '부적응' 사유가 여성은 약 25% 정도 나타나며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30% 정도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각 연도별 유초중등통계, 학업중단학생 현황(<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6월 29일 인출).

인데, 남녀 모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이유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업중단과 관련한 성별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8년에 수행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결과¹¹⁾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의 결과 분석으로 재구성하여 여성 청소년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성별 선호가 크게 작동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고등학교 1·2학년 시점에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50% 이상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학업중단의 사유는 상당히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학교 ‘부적응’의 사유가 가장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해외출국’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중은 약 20% 정도로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한 체계적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고민 상담은 부모님, 친구 등과 가장 많이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교사와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여학생은 31.7%로 남성 25.8%보다 많고 10% 내외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교사, 학부모, 친구, 상담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민을 의논하고 결정을 신중히 하는 경향성이 다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남학생들에 비해 학교의 의미,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 심리·정신적인 문제, 왕따 등의 교우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부하기 싫은 단순한 욕구보다는 그 외의 정신적인 어려움과 학교 이외의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원하는 또 다른 욕구가 더 많다고 판단된다.

학업중단숙려제 시 상담을 받았던 기관이용 빈도가 높은 곳은 Wee클래스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학교 생활에서 교사로부터 받는 도움은 여학생이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11)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나타났고, 친구관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한 부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해 여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후회와 관련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우관계의 기회 부족, 교복 착용에 대한 기회 상실,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 소속감의 상실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그러나 후회만큼이나 만족하는 내용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학업중단 이후 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는 진로상담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50.7%가 진로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이들은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업중단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학업중단 이후 차별과 관련한 사례는 특별히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분석되었다. 공공서비스 이용 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학업 중단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카톡,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의 절반가량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배달과 서빙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당수가 1일 평균 5~1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적어도 30% 미만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조사 결과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비중이 50% 내외이며, 아르바이트 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약 50%만이 부모 동의하에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불완전 노동의 실태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희롱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8%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은 참고 일을 계속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는데, 참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유의미하게 낮으나 진로준비나 진로 독립에 대해서는 그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정규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열망이 남성에 비해 높아서 지속적인 상담 등의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학업중단 이후 제도권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집단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에서 유난히 인색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으며 향후 진지한 계획과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서비스의 지역사회 개선을 통해 이런 여성들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여성들의 제도권 진입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공한다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과 지원요구 분석 결과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관련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경험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명과 쉼터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주요내용은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구체적인 위기 경험과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학업중단 관련 인식, 학업중단과 관련된 기준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지원요구 등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성과 학업중단 사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밖’과 ‘위기’ 개념을 단순하게 등치시키지 않고자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가정, 경제문제,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을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성인지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위해 본 연구는 그동안 주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 학교 밖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밖 여성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학교 부적응 경험’과 ‘가정환경의 구조적 어려움’을 위기 수준을 구분하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유형화 하였다. 이러한 유형화가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과 그들의 경험을 도식화할 수 있다는 위험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각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정책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우선 이들의 가정환경과 위기 경험과의 관계는 가정의 지원이 안정적이어도 오히려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학교 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고, 각 사례별로 복합적인 감정들이 드러나, 쉼터에 입소해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경우와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학업중단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 밖’과 ‘가정 안’의 위치 상황으로만 크게 구분하였다. 가정 안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 밖에 속하는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지원이 부족하여 가정환경의 취약성이 보다 높은 점도 유형화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인 사례 7을 제외하고, 모든 사례가 따돌림,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의 경험은 해당 여성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심각하게는 건강까지도 악화시켰으며, 전공 및 대학, 직업 등 장래계획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경험 역시 교사의 괴롭힘과 젠더갈등(문제), 건강 악화 등의 요인이 더해진 학교폭력 경험을 보다 심각한 유형으로 보고, 심각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이러한 구분에서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경험의 심각성 정도가 각 사례의 청소년들이 겪은 아픔과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거쳐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A와 B유형은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교사와의 갈등 등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 가족의 지원 하에 있는 사례들로, A유형의 경우 교사의 괴롭힘과 젠더갈등(문제)이 더해져 B유형의 사례들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자 가정 밖 청소년인 C와 D유형은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경험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였고 경제·가정문제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례이다. C유형은 D유형에 비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경험의 심각성이 높고, 가정환경의 취약성도 높아 위기의 정도가 가장 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지원요구는 가정 안과 가정 밖의 경우 전자는 학업 관련 지원요구, 후자는 경제적 지원요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는 한편, 대부분의 지원요구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다.

우선 A와 B유형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해와 지지 하에 자격증,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등 수능 지원, 입시 관련 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등 검정고시 지원 이상의 학업 관련 지원요구가 높았다. 특히 쉼터에서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D유형의 사례 4를 포함, A와 B유형에서 검정

고시 점수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부 내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정해준다는가, 대학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경우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대학 현황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21.6%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6개 대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차별(세계일보, 2020.9.30)¹²⁾이 확인되는 바, 청소년 시기 위기 경험이 성인 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A와 B유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요구도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자퇴를 하면 인생 망한다거나, 자퇴를 했다고 하면 술이나 담배, 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을 겪었으며, 이를 통해 자퇴의 경험이 이후 자신의 미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자 가정 밖 청소년인 C와 D유형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자립 지원의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가 거의 불가능해진 데다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일부 쉼터의 여성 청소년은 친구와 만날 때 드는 식비나 교통비, 기타 사고 싶은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여 용돈 등의 현금 지원도 희망하고 있었다. C유형의 경우, 각각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통적인 지원요구로는 우선 Wee클래스의 학업중단 예방 기능 강화를 들 수 있다. 집단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 모두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퇴를 결정하였다. 상담에서 피해자에게

12) 세계일보(2020.9.30). 검정고시 출신 차별 여전... 32개 대학 수시 학종 지원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08474>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참고 견디라고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상담 내용이 전달이 되도 담임교사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Wee클래스에서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업중단 이후의 상담 지원요 구도 확인되었다. 평범한 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이 필요한지 꿈드림의 초기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만연해진 학생들 간 따돌림과 괴롭힘에 학교 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학교가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대로 학교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의 역할은커녕 학업중단의 큰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의 젠더갈등(문제)도 학교 부적응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례 1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가 너 같은 애들이 림살롱 같은 데를 다니게 된다는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며 초등학교 때 친했던 남학생이 자신을 “헤픈 여자”라는 소문을 낸 이후 따돌림을 당했다. 사례 2의 경우 남학생 다수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문제 남학생들의 담배 냄새로 천식이 생기고,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듣는 등의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사례 8은 여학생에게만 강요되는 치마 교복과 몸에 딱 붙는 교복 상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교 내 교사와 또래들의 편견과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례 6은 괴롭히는 무리 중 남학생들로부터 수업시간에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 정책과제

1)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원체계의 강화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외, 2018)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의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여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 대한 의존도와 희망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면 학교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과 관련한 예방조치 과정을 좀 더 섬세히 설계하면 학업중단을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게서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고민 상담은 부모님, 친구 등과 가장 많이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교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여학생은 31.7%로 남성 25.8%보다 많고 10% 내외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교사, 학부모, 친구, 상담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민을 의논하고 결정을 신중히 하는 경향성이 다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3장에서 설명한 8명의 사례조사를 통한 유형화에서 A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상담과 조언에 특히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자퇴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보여준 소극적 태도나 내용 등이 본인의 미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퇴를 결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남학생들에 비해 학교의 의미,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 심리·정신적인 문제, 왕따 등의 교우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부하기 싫은 단순한 욕구보다는 그 외의 정신적인 어려움과 학교 이외의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원하는 또 다른 욕구가 더 많다고 판단된다.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 Wee클래스에 대한 두 가지의 세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Wee클래스의 상담 결과를 학생의 학업중단이라는 행정적 절차 안에서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한 피드백 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학업중단 전 숙려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Wee클래스의 역할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Wee클래스에서 본인이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 상담하고 그 문제가 학교나 학교폭력 등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학교 내의 선순환제도를 거쳐 숙려기간 중에 해당 학생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피드백되는 기능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Wee클래스의 역할이 단지 상담에만 그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Wee클래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역할 강화는 단순히 ‘상담’을 하고 일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 ‘학생의 문제를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학교의 대응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학교생활에서 교사로부터 받는 도움은 여학생이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한 부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해 여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후회와 관련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우관계의 기회 부족, 교복 착용에 대한 기회 상실,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 소속감의 상실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이런 여학생들의 성향은 만일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여러 조치를 제안한다면 학업과 대학진학에 관심이 있는 A유형 여학생들의 학업중단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Wee클래스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학업중단과 관련한 학교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Wee클래스의 상담내용을 데이터화하여 문제를 유형화한 후 적극적 문제 해결 방안을 학교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 관련한 분기별 데이터화를 담당교사가 작업하여 신학기, 중간고사 등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상담 문제를 유형화하고 이를 ‘교내 상담위원회(가칭)’에서 정례화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하기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성 청소년의 어려움은 젠더 문제와 많이 연계되어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강요되는 부분과 ‘교우관계’에서도 ‘여학생’에게 여성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한 낙인찍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상처받은 여학생들은 교우들과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저조가 겹치면 학업중단을 선택하는데, 이런 현상은 결코 드물지 않은 사례이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정서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 대상 사회·정서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학교가 여성 청소년들의 요구에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Wee클래스를 통해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ee클래스의 적극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의 상담내용은 개인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상담의 기능이 학교에서 선순환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담 결과를 유형화하여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실체를 가능한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호조치 및 문제해결 방안을 학교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을 통해 학교 내 젠더갈등이 중요한 학업중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 해당 학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시장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에 주목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윤철경 외, 2018)에 따르면 상당수가 1일 평균 5~1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적어도 30% 미만만 받고 있을 가능성이 조사 결과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비중이 50% 내외이며, 아르바이트 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약 50%만이 부모 동의하에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전 노동의 실태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희롱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8%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은 참고 일을 계속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는데, 참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첫째,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직업·진로 멘토링 사업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체험과 진로 결정 관련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직업·진로 멘토링 사업’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서도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등은

대부분 하고 있었고 가정의 지원이 가정 밖에 있는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해 좀 더 성숙한 진로 준비를 하고 사각지대에서도 벗어나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운동처럼, ‘지역사회 직업·진로 멘토링 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체계를 설명한 표 IV-1에 따르면 지역사회 지원체계(CYS-net),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대표적 지원체계이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지원의 사업들이며 ‘위기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이고 우선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이제 ‘위기성’이 높은 청소년 흔히 “비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 대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의 문제는 이미 학교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기에 이런 혼란스러움은 당장 대학입시의 ‘내신’과 연동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들을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는 형편으로 파악된다. 차라리 학교에서 “왕따”로 시간을 보내며, 학업을 망치느니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것에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Wee클래스는 그것을 확인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는데,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자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용서의 몫도 모두 피해자의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좋은 진로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또래의 친구들과 다르게 비정형화된 진로를 선택한 이들에게 ‘행정적 진로’가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진로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 체계는 아래 표 IV-1을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사회 직업·진로 멘토링 사업’은 지역(communitiy)을 중심으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업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이들과 멘토-멘티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다. 해당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멘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고령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을 모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중요한 점은 이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멘토로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자원봉사 차원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비용에 대한 분담도 필요하다.

4) 다양한 지역지원체계의 접근성 제고 및 직업탐색 공간의 다양화

해당 사업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이해하고 찾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는 공부에 미련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도 모두 대학진학을 내심 원한다는 부분이었다. 비록 여러 환경의 제약상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참여하고 ‘직업훈련’도 받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진학을 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반응들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 본인의 내면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 이후 진로에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이해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장치를 발동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오디세이 학교’와 같은 학업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를 나오기 이전에는 ‘오디세이 학교’와 같이 다른 공간의 학교에서 좀 더 학업과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럼에도 학교를 그만둔 경우,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업과 관련한 멘토’를 개발·발굴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직업탐색과 진로경험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필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들에게 지역사회가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영화 ‘블라인드사이드’에서 집 없는 빈민촌 소년

에게 지역사회의 어른이 충분한 멘토 역할을 하여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켰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도 정부 주도 '행정'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더 한발 나아가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의 지원체제로 발전하여야 한다.

표 IV-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사업명	정의	설치운영 현황	주요 지원내용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CYS-net)	-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전국 235개소 (서울 25개, 부산 16개, 대구 9개, 인천 10개, 광주 6개, 대전 3개, 울산 6개, 경기 32개, 강원 13개, 충북 13개, 충남 16개, 전북 15개, 전남 23개, 경북 22개, 경남 22개, 제주 3개, 세종 1개)	- 청소년 전화 1388: 365일 24시간 청소년과 고민상담에서부터 긴급한 위기문제 해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지원 - 청소년 동반자: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 및 기관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프로그램 운영·지원 - 1388 청소년지원단: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되어 '발견·구조', '의료·법률', '복지지원', '상담·멘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
청소년 쉼터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 의식주 제공 등 대체가정의 역할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가출청소년 특화시설	전국 135개소 (서울 17개, 부산 6개, 대구 6개, 인천 8개, 광주 5개, 대전 6개, 울산 5개, 경기 31개, 강원 8개, 충북 7개, 충남 9개, 전북 6개, 전남 5개, 경북 5개, 경남 5개, 제주 6개, 세종 0개) - 일시쉼터 31개소	- 가출 청소년 생활지원(의식주) -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상담 - 의료 및 법률자문 - 학업지원 - 진로탐색 및 훈련 - 취업지원 등

사업명	정의	설치운영 현황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쉼터 63개소 - 중장기쉼터 40개소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드림]은 ‘꿈=드림 (Dream)’, ‘꿈을 드림’ (‘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임. 	<p>전국 218개소 (서울 26개, 부산 17개, 대구 9개, 인천 9개, 광주 6개, 대전 3개, 울산 5개, 경기 31개, 강원 12개, 충북 13개, 충남 16개, 전북 10개, 전남 21개, 경북 15개, 경남 21개, 제주 3개, 세종 1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 교육지원: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대학 입시 지원, 학업중단 속려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복교지원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직업탐색·체험 프로그램 제공,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취업훈련 연계지원(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비즈쿨 등) - 자립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초 소양교육 제공 - 건강검진: 10대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본인부담 없음), 건강생활 관리 지원, 체력관리 지원

* 출처: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_cont.asp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참조, 청소년 쉼터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mid=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와 충남청소년쉼터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336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를 참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user/sub01_3.asp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참조.

5) 심리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제공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들의 심리는 남성에 비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유의미하게 낮으나 진로준비나 진로독립에 대해서는 그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정규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열망이 남성에 비해

높아서 지속적인 상담 등의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학업중단 이후 제도권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집단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에서 유난히 인색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으며 향후 진지한 계획과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서비스의 지역사회 개선을 통해 이런 여성들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여성들의 제도권 진입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공한다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이라 예측할 수 있다.

6) 여성청소년의 성·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 중 위기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은 B, C, D라 판단한다. 이들 중 쉼터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은 공적인 비용만 집행되는 부분에 재정적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다 보고하고 비용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은 개인적 지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쉼터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여성의 경우 위생과 의료에 대한 지출이 남성과 달리 따로 많이 필요한데, 이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적 치료 및 상담은 어린 여성 청소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지자체에서 여성용품 사용에 대한 예산비율을 여성 청소년 쉼터에는 다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위생에 대한 다양한 지출은 비목을 세세히 적지 않은 가운데¹³⁾, 물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13) 쉼터 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여성의 경우 실제적으로 피복비, 여성용품 구입비, 여성용품약품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 IV-1로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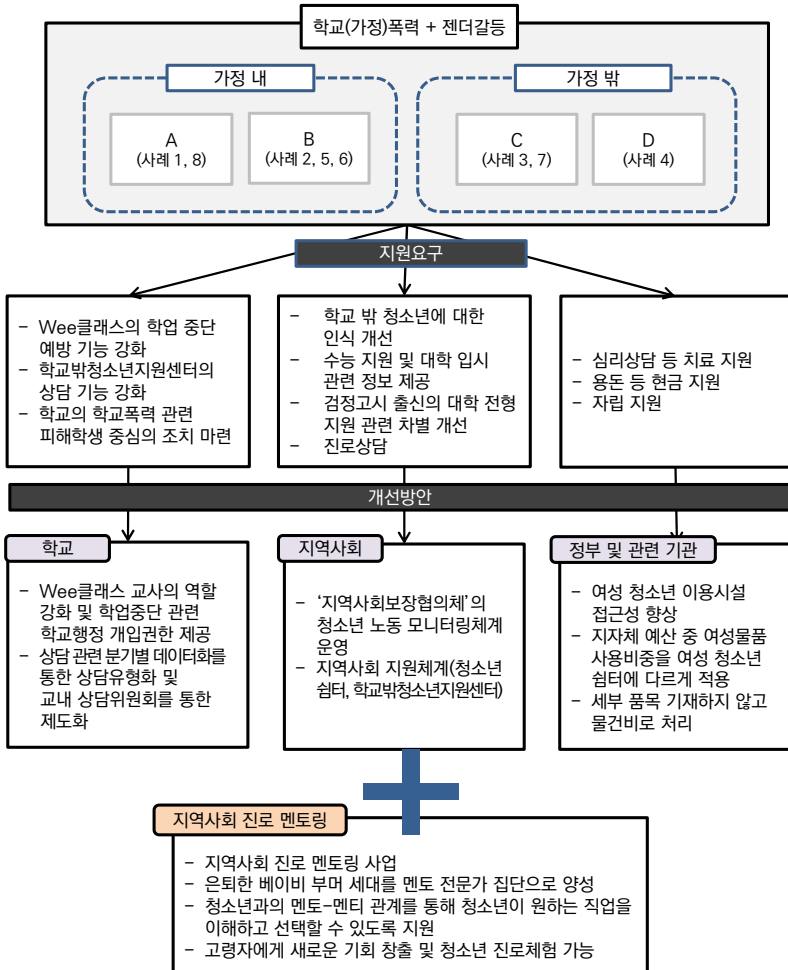


그림 IV-1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방안

등의 수납공간 확보 필요 및 수건 사용 등에서도 남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위생과 관련한 비중이 남성보다 더 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육부(2019.5.17.). 보도자료: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200000#>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4호)**. <http://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김영희, 허철수(2012).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김지경, 이상준(2014). **학교 밖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실태조사**(연구보고 14-R30). 세종: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18-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꿈드림 홈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관련 내용. <http://www.kdream.or.kr/index.asp>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세계일보(2020.9.30). 김정고시 출신 차별 여전... 32개 대학 수시 학종 지원 못

-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08474>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쉼터 관련 내용.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mid=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현주, 송진아(2011).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57-83.
- 정해숙, 문유경, 박성정, 이명선, 김승연(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연구보고 2010-48). 서울: 여성가족부.
- 정해숙, 오은진, 최자은(201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2011 연구보고서-1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해숙, 최윤정, 최자은(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2014 연구보고서-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윤정, 황소리, 오민아(2018).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4(6), 375-393.
- 조혜영(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485-498.
- 충남청소년쉼터 홈페이지. 청소년 쉼터 관련 내용.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336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2019). 간추린 교육통계.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9&publSeq=3&menuSeq=0&itemCode=02>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각 연도별 유초중등통계, 학업중단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6월 29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_cont.asp에서 2020년 11월 4일 인출.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청소년상담연구 196).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ABSTRACT

A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With a Focus on Female Youths

With respect to out-of-school youths, a detailed approach based on gender and reasons for dropping out is necessary. In particular, since youths tend to internalize what is unfolding socio-culturally before them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policy tasks that consider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crisis experience of male and female youths must be establishe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se tasks through the support system of the local community. To that end, this study examined the general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out-of-school youth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nder groups, and then attempted to grasp the life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states of the female youths in crisi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an in-depth analysi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tatus of female youths who are more marginalized and vulnerable, and to propose support plans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female youths in crisis and out-of-school youths, and examined the gender of students dropping out of school. Second, as a secondary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2018 out-of-school youth survey were

re-analyzed to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ird, in-depth video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out-of-school female youths and two field workers from the youth shelter where some of the interviewees reside. Finally, an expert advisory meeting was held to thoroughly analyze the results and put forward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these research method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ut-of-school female youths, and extracted their dropout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Based on the results, various policy tasks such as reinforcing the emotional support system of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in the labor market, starting vocational and career mentoring programs in the local community, enhancing the accessibility of various local support systems, diversifying job search channels, examining the psycho-emotional situation, providing custom-tailored counseling services, and enhancing accessibility to sexual and health counseling of female youths were proposed.

Keywords: out-of-school female youths, dropout experiences of out-of-school female youths, support needs, community-based support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최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 보고서 / 박한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유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유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유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해정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영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터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케팅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 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연구보고 20-R14-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 쇄 2020년 12월 24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44)868-745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92-6 94330

979-11-5654-290-2 (세트)



연구보고 20-R14-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926
ISBN 979-11-5654-292-6 94330
ISBN 979-11-5654-290-2 (세트)